13일 Market Index
코스피 5290.53 (-52.20)
코스닥 699.66 (+3.13)
금리(국고채 3년) 3.759 (+0.030)
환율(원·달러) 1336.7 (+6.0)

metro 경제

하나금융그룹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1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11월 16일 월요일

엔비디아, 670조 AI구상 자금줄 막히나

젠슨 황 퇴진 후 첫 실적
韓시간 18일 오전 콘퍼런스콜
황 vs 크레스, 금융지원 이견
고객사 금융전략 변화 주목



美 대규모 항공이륙 중단 여파 14일(현지시간) 美 휴스턴의 조지 부시 국제공항에서 승객들이 항공편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미 연방항공청(FAA)은 전국적인 항공기 운항 중단 조치를 해제했지만 미 전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항공 이륙 중단의 여파로 미국 공항들은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AP·뉴시스

젠슨 황 전 최고경영자(CEO) 퇴진 후 첫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투자 전략에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3분기 역대 최대 매출이 예상되지만 대규모 금융지원 구상에서는 일부 기관의 이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새 경영진의 투자 기조가 그래픽처리장치(GPU) 수요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15일 엔비디아에 따르면 회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2027회계연도 3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한국시간으로는 18일 오전 6시 20분 실적이 공개되며 오전 7시 콘퍼런스콜이 진행된다. 황 전 CEO가 지난 12일 사임하고 콜레트 크레스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임시 CEO로 선임된 이후 첫 실적 발표다.

3분기 매출은 사상 처음으로 1000억달러(약 134조원)를 넘어설 전망이다. 시장 전망치(컨센서스)는 1093억달러(약 146조원)로 엔비디아가 지난 8월 제시한 1080억달러(약 144조원)를 웃돈다. 데이터센터 부문 매출은 1018억달러(약 136조원)로 예상됐다.

다만 이번 3분기 실적은 황 전 CEO가 퇴진하기 전인 지난달 25일까지의 경영 성과다. 이에 따라 새 경영진이 제시할 4분기 매출 전망과 기존 AI 투자 전략의 유지 여부가 이번 발표의 주요 관전 요소로 꼽힌다.

특히 황 전 CEO가 주도한 고객사 금융지원 전략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황 전 CEO는 고객사의 AI 데이터센터 구축 자금을 지원해 반도체 구매를 촉진하는 전략을 펴왔지만 크레스 임시 CEO는 대규모 금융지원에 따른 위험을 우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크레스 임시 CEO 금융지원 보수 성향

업계에 따르면 크레스 임시 CEO와 재무팀이 오픈AI 등 AI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에 이견을 제기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오하이오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원 구상도 당초 2500억달러(약 334조원)에서 1200억달러(약 160조원)로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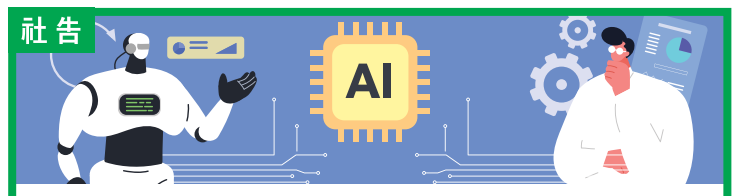
황 전 CEO가 추진한 5000억달러(약 670조원) 규모의 AI 금융지원 구상도 금융기관과의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엔비디아는 지난 8월 블랙록과 골드만삭스 등 6개 금융기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외부 자금을 조달해 고객사의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었다.

문제는 금융기관의 참여와 보증 조건을 둘러싼 이견으로 자금 조달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에 따르면 참여 금융기관 가운데 최소 1곳이 철수를 논의했으며 일부 고객사와 금융기관은 엔비디아에 보증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해당 구상에 따른 대출도 아직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투자 방향은 정식 CEO 선임과도 맞물려 있다. 현재 크레스 임시 CEO 외에 엔비디아의 AI 소프트웨어 플랫폼 쿠다(CUDA) 개발을 이끈 이언 벅 부사장과 엔비디아 출신 르네 하스 Arm CEO 등이 후임 후보로 거론된다. 〈2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2026 뉴테크놀로지포럼'

AX시대, 주요 업종별 AI 활용법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언론 〈메트로신문〉과 〈메트로경제신문〉을 발행하는 메트로미디어가 'AX시대, 주요 업종별 AI 활용법은'이란 주제로 '2026 뉴테크놀로지포럼'을 개최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인공지능 전환(AX)'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제 AI을 도입해 업무에 활용하는 AX는 '선택'에서 '필수'로 바뀌었습니다. 일부 앞선 기업만 쓰던 기술이 이제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퍼지고 있습니다. 다만, AI는 업종마다 쓰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이 쓰는 방식과 금융업이 쓰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내 산업에 맞는' 안내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AX 시대의 변화를 어렵고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터에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이야기로 풀어 드립니다. 여러분의 산업, 우리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최신 트렌드와 산업 적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2026 뉴테크놀로지포럼'에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주 제 : AX시대, 주요 업종별 AI 활용법은
◆ 일 시 : 2026년 11월 18일(수) 14:00~16:50
VIP 티타임 13:30~14:00
◆ 장 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프로그램 :
14:20~14:50 기조강연 이경전 경희대학교 교수
14:50~15:20 뤼튼테크놀로지스 김지섭 이사
15:20~15:50 LG유플러스 한영섭 AI R&D랩장
15:50~16:20 KT IT부문 서비스플랫폼담당 박기철 상무
16:20~16:50 SK텔레콤 현창호 엔터프라이즈 기술지원팀장
◆ 문 의 : 포럼 사무국 (02)721-9818(forum@metroseoul.co.kr)
◆ 참가비 :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metro

靑, AI 부정행위 차단 긴급회의

국가시험 의심사례 전수조사
18일 수능 전담팀 편성하기로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씨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실토하면서, 청와대는 15일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청와대는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걸쳐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한씨의 부정행위 관련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오는 18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비롯한 각종 국가시험의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 소집됐다.

이날 회의에선 국가자격시험 전체에 대해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행위가 전문직 자격시험 전반으로 확산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또 수능에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수험생 대상 AI 기기 점검 절차 마련 ▲시험장별 AI 기기 판단 전담인력 배치 ▲수험생·감독관 교육 강화 등 시험장 관리 감독체계도 집중 점검했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부정시험 관련 사건 접수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며, 신종 수법이나 조직적 부정행위 등 중대한 범죄는 전담팀을 편성해 배후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하 정책실장은 "다가오는 수능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열감지카메라 등 현재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되,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 착용 수험생의 위축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예진 기자 syj@

m-커버스토리

외국인 지갑 열었다… 백화점 실적 '고공행진'

百 3사, 3분기 호실적
신세계, 매출 6892억 11%↑
롯데, 5.7% 증가 8081억
현대, 6.5% 오른 6145억

백화점 3사가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명품·패션 등 고마진 상품군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3분기 호실적을 거뒀다. 다만 4분기에는 원화 강세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의 3분기 매출은 689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037억원으로 23.5% 늘었다. 본점(44%), 강남점(17%), 센텀시티점(14%) 등 주요 점포가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신세계의 연결 영업이익은 1643억원으로 64.7% 급증했다. 〈관련기사 3면〉

롯데백화점은 3분기 매출이 5.7% 증가한 8081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영업이익도 35.7% 늘어난 1129억원을 거뒀다. 현대백화점 역시 매출 6145억원, 영업이익 1141억원으로 각각 6.5%, 27.8% 증가했다.

실적 개선의 배경에는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확대가 있다. 롯데백화점·쇼핑몰의 올해 외국인 누적 매출은 지난달 초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 또한 같은 기간 각각 8500억 원과 8050억원을 기록하며 1조 달성을 코앞에 뒀다. 다만 업체별 외국인 매출 집계 기준에는 차이가 있다. 신세계는 백화점 매출만 집계한 반면 롯데는 아울렛과 몰, 현대는 아울렛 매출을 포함한다.

다만 4분기 전망은 엇갈린다. 연말 쇼핑 성수기와 대규모 할인 행사가 매출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원화 강세에 따른 외국인 쇼핑 수요 감소와 국내 증시 조정에 따른 소비 위축이 변수다. 지난해 4분기 호실적에 따른 역기저 효과도 부담이다.

/김서현 기자 seoh@

메트로 한줄뉴스



▲국힘, 세무사 수석 부정행위 자백에 "교육당국, 조속히 대책 마련해야"
▲조국 "與, 아무 일도 하지 않아 진영 내부서 역풍…조희대 탄핵해야" /사진 뉴시스
▲혐오·비방 '꼼수' 정당 현수막 다시 기승…정부, 연말까지 '철퇴'
▲직장인 64% "온라인서 혐오 표현 접해"…그중 48% "여성·특정지역 대상"
▲"건강기능식품 먹는 집 늘어도"…가구당 지출은 줄어
▲청년 임금근로자 46%가 비정규직 '역대 최고'…정규직 23년 새 107만개 사라져

최태원, ‘AI 플라이휠’ 전략 제시… “글로벌 기업 개방적 협력”

〈SK그룹 회장〉

SK그룹 최고경영자 세미나

최재원·최창원 등 주요 경영진 참석
기존사업 점검·중장기 성장 전략 논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2.0’ 자본 집중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4일 경기도 이천 SKMS연구소에서 열린 ‘2026 CEO세미나’에서 기조 발제를 하고 있다. /SK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반도체 중심의 인공지능(AI) 사업을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분야에 이어 서비스까지 확대해 전 계열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15일 SK그룹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경기도 이천 SKMS연구소에서 열린 ‘2026 최고경영자(CEO) 세미나’에서 AI 사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는 ‘AI 플라이휠(Flywheel)’ 전략을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및 주요 계열사 경영진이 참석했다. 경영진은 사흘간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점검하고 AI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기존 사업의 틀을 깨고 스스로를 ‘AI 컴퍼니’로 재정의해야 한다”며 “모든 멤버사가 새로운 역할을 찾아 AI 서비스와 토큰 이코노미까지 연결하는 ‘AI 플라이휠’ 구조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AI 플라이휠은 반도체 경쟁력을 바탕으로 AI 인프라와 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서비스 수요를 창출하는 선순환 전략이다.

SK그룹은 AI 인프라 구축에 머무르지 않고 AI 모델과 애플리케이션 등 서비스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AI 연산과 서비스가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로 거래되는 ‘토큰 이코노미(Token Economy)’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AI 플라이휠 전략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투자도 추진 중이다. SK그룹은 엔비디아와 AI 팩토리 구축 및 차세대 메모리 공급을 위한 포괄적 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차세대 AI 메모리 공동 개발 및 장기 공급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도입해 국내 최대 2기가와트(GW) 규모의 AI 팩토리를 구축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SK텔레콤은 2027년부터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메모리(HBM)4가 탑재된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컴퓨팅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엔비디아 및 리벨리온과는 GPU·신경망처리장치(NPU) 통합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 AI 서비스 운영 비용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그룹 차원의 사업구조 개편도 AI 투자 확대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 SK그룹은 비효율 사업을 정리하고 주력 사업에 대한 투자 효율을 높이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2.0’을 통해 미래 성장 분야에 자본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SK에코플랜트도 사업 재편 대상에 포함됐다. SK㈜는 SK에코플랜트의 기업공개(IPO) 대신 완전 자회사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SK에코플랜트는 기존 건설·환경 중심에서 반도체와 AI 인프라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전환하고 있으며 산업용 가스와 반도체 소재·부품 기업을 편입해 관련 사업을 확대해 왔다.

사업구조 개편과 함께 각 계열사의 생산 현장과 업무 체계에 AI를 적용하는 ‘실전형 AI 전환(AX)’도 확대한다. SK하이닉스는 AI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반도체 생산 효율을 높이고 있으며 SK이노베이션은 AI 기반 공정 분석으로 생산 수율 개선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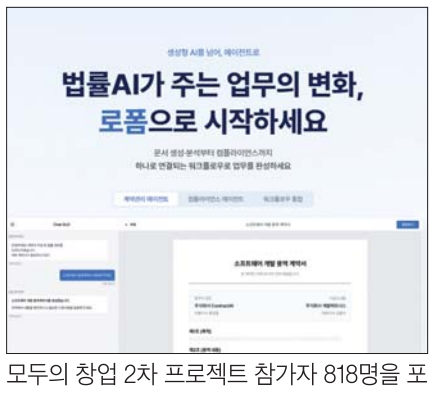
SK텔레콤과 SK가스도 각각 네트워크 운영 자동화와 시황 분석 등에 AI를 활용하고 있다. SK그룹은 현장 중심의 AI 활용 성과를 다른 계열사로 확산해 생산성 향상과 신규 사업 기회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 회장은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AI 시대에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며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개방적 협력을 통해 역량과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정부 사업 개인정보유출 반복… 보안체계 개편·강화 시급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피해 속출
공식 플랫폼·공급기업 평가 ‘구멍’
중기부 “보호조치 지속 점검·관리”



모두의 창업 2차 프로젝트 참가자 818명을 포함해 총 2만28명이 개인정보가 노출된 아미쿠스렉스의 ‘로폼’ 서비스 화면 갈무리.

이재명 정부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적인 전국민 창업 프로그램인 ‘모두의 창업(모창) 프로젝트’가 또다시 참가자 개인정보가 털리면서 체면을 구기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모창 공식 플랫폼이 아닌 50개 민간 AI 솔루션 공급기업 중 한 곳에서 발생했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1차 프로젝트에서 합격자 5000명의 이메일, 심사평, 200자 이내 창업 아이디어 요약본이 최종 유출된데 이어 이번 2차 프로젝트에서도 참가자 818명의 개인정보가 새 나가면서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안 체계 개편·강화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올해 1550억원이 투입된 모창 프로젝트는 내년 계획된 예산만 4411억원에 이른다. 국회가 중기부 예산안을 연말에 그대로 통과시킬 경우 2년간 총 6000억원에 가까운 국민 혈세가 해당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된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차 모창 프로젝트의 AI 솔루션 공급기업 50곳 가운데 하나인 ‘아미쿠스렉스’(솔루션명 ‘로폼’)가 지난 11일 오전 8시30분 자체 시스템에서 외부 해킹 공격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조사 결과 해당 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총 2만28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 정보에는 2차 모창 프로젝트 참가자 818명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50개 AI 솔루션 공급회사들은 중기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프로젝트 참가자들에게 AI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각 사마다 자체 시스템을 통해 해당 솔루션을 선택한 참가자에게 계정 발급에 필요한 개인정보 3자 제공을 위한 동의 후 서비스를 하고 있다.

중기부와 시행기관인 창업진흥원은 AI 솔루션 공급기업을 고를때 개인정보 보안 여부 등을 평가한 후 선정했다.하지만 이번 아미쿠스렉스의 개인정보 유출로 공급사 평가에 헛점을 보이게 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유출 사고는 모창 공식 플랫폼의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이 아닌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AI솔루션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전체 모창 AI 솔루션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접근 권한 관리, 보유기간 경과 후 파기 여부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 실태를 지속 점검·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발생한 지난 1차 모창 프로젝트 개인정보 유출은 공식 플랫폼에서 벌어졌다. 당시 중기부와 국가정보원은 조사를 통해 관련 플랫폼을 통해 합격자 5000명 전원의 이메일 등 일부 정보가 최종 유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1차 프로젝트에는 6만2944명이 지원한 바 있다.

1차 유출 이후 중기부는 관련 플랫폼 보안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개인정보 관리체계도 개선키로 했다. 하지만 이번엔 자체 플랫폼이 아닌 솔루션 공급사로부터 보안 이슈가 불거져 모창 프로젝트 보안 거버넌스 구축 범위는 더욱 넓어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중기부는 내년에도 모창 3·4차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선발 인원도 올해 1만5000명(1차 5000명+2차 1만명)보다 많은 3차 1만명, 4차 1만명 등 총 2만명을 목표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보육, 사업화, 네트워킹, 후속 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bada@

원화강세·유가하락에 수입물가 ‘뚝’… 기준금리 변수 부상

10월 수입물가 전월대비 1.8%↓

원화 강세와 유가 하락으로 한국의 10월 수입원가 부담이 줄어든 반면, 일본은 수입가격 상승에 엔화 약세가 겹쳐 부담이 커졌다. 국내 근원물가의 높은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수입 비용 완화가 한국은행의 물가 대응 부담을 얼마나 덜어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의 10월 수입물가는 원화 기준으로 전월보다 1.8% 하락했다. 일본은행이 지난 12일 공개한 같은 달 수입물가는 엔화 기준으로 3.3% 상승했다.

국내에서는 환율과 유가가 함께 수입비용을 낮췄다. 원·달러 월평균 환율은 9월 1359원에서 10월 1337.66원으로 1.6% 하락했다. 같은 기간 두바이유 월평균 가격도 배럴당 113.71달러에서 110.73달러로 2.6% 내렸다.

실제 거래에 쓰인 통화로 보는 계약통화 기준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0.2% 하락에 그쳤다. 원화 환산 과정에서 환율 하락 효과가 더해져 낙폭이 커졌다. 이흥후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국제유가 하락도 영향을 미쳤지만 “환율 하락이 좀 더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수입원가 하락이 국내 판매가격에 반영되면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뒷받침할 수 있다. 수입원가 하락은 생산·유통 단계를 거쳐 소비자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있다. 10월 수입물가는 전월보다 낮아졌지만 전년 동월보다는 여전히 13.5% 높았다. 같은 달 수입물가와 소비자물가 움직임만으로 비용 완화 효과를 판정하기는 어렵다.

국내에서는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8%로 9월보다 0.1%p 낮아졌다. 식료품·에너지 제외 근원물가 상승률은 2.8%로 전월과 같았다.

세부 흐름은 엇갈렸다. 가공식품 상승률은 9월 2.1%에서 10월 2.9%로, 생활물가는 2.5%에서 2.6%로 높아졌다. 반면 개인서비스는 3.5%에서 3.3%로 낮아졌다.

한은은 지난 3일 물가상황점검회의에서 누적된 비용압력의 전이와 수요 측 압력 증대를 경계했다. 새 수입 계약의 가격이 내려가도 앞서 쌓인 비용의 국내 가격 전가까지 곧바로 멈추진 않는다. 신 총재는 “비용의 가격 전이와 소득 여건 개선에 따른 수요가 맞물려 있으며, 수요 측 압력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오는 26일 금리 결정을 앞둔 한은에는 수입원가 하락의 지속성과 함께 국내 가격의 오름세가 얼마나 낮아지는지가 중요하다. 환율·유가의 비용 완화가 이어져도 기존 비용의 가격 전가와 수요 압력이 강하면 물가 대응 부담이 남는다. /김주형 기자 gh471@

›› 1면 ‘엔비디아, 670조 AI구상’서 계속

GPU 공급전략 이목집중 정부 “사업 협력 재확인”

◆차기 경영진 정책, 국내 데이터센터 투자 영향

이에 따라 차기 경영진의 금융지원 정책과 차세대 GPU 개발·공급 전략에 따라 데이터센터 투자와 반도체 수요 전망도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고객사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가 조정되면 신규 데이터센터 투자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사업 계획이 주목된다.

이러한 경영 전략은 국내 반도체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에 적용할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4 공급을 추진하고 있어 GPU 생산과 데이터센터 투자 일정에 따라 추가 발주 규모와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국내서는 엔비디아가 지난해 약속한 AI 인프라 협력의 확대 여부도 관심사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네이버클라우드 등에 GPU 26만장 이상을 공급하는 협력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정부는 기존 GPU 공급계획에 변동이 없다는 엔비디아 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3일 엔비디아 측과의 현안점검회의를 통해 GPU 26만장 공급과 기존 협력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하비 존스 엔비디아 이사회 의장은 지난 12일 공식 성명에서 “이사회는 크레스 임시 CEO와 경영진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며 “회사 운영과 고객에 대한 약속, 제품 개발계획도 차질 없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면세점 대신 시내로”… 2000만 관광객이 바꾼 쇼핑 공식

m-커버스토리

관광 소비 재편

방한 외국인이 사상 처음 연 20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유통 채널별 성적표가 엇갈리고 있다. 백화점은 역대 최대 규모의 관광객과 원화 약세가 맞물리며 역대급 실적을 냈다. 반면 면세점은 3분기 들어 환율이 내리며 상반기보다 숨통이 트였지만 외국인 객단가가 계속 떨어져 속사정이 복잡하다.

1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누적 방한 외국인이 지난 12일 20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했다. 1~9월 방한객은 1711만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1.5% 늘었고, 같은 기간 외국인의 관광 분야 카드 소비액은 15조9416억원으로 47.7% 증가했다. 씀씀이가 입국자보다 두 배 넘게 빠르게 불어난 셈이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 중구 명동에서 이동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1071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이상 증가했다. /뉴시스

◆백화점 ‘역대급’… 관광객+원화약세

늘어난 소비는 백화점으로 몰렸다. 이달 발표된 3분기 백화점 부문 영업이익은 신세계 1037억원, 롯데 1129억원, 현대 114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23.5%, 35.7%, 27.8% 늘었다. 3사 합계는 3307억원이다. 롯데백화점 매출은 8081억원으로 역대 최대였고, 현대백화점 영업이익률은 15.5%에서 18.6%로 뛰었다.

호실적을 끌어올린 것은 외국인이다. 3사의 상반기 외국인 매출은 1조72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0% 늘었다. 신세계백화점은 3분기 외국인 매출이 71% 급증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에서 7.5%로 커졌다. 롯데백화점은 지난달 6일 업계 최초로 연간 외국인 매출 1조원을 넘겼고, 신세계(1~9월 8500억원)와 현대(10월 초 누적 8050억원)도 연내 돌파가 유력하다. 롯데백화점 본점은 외국인 매출 비중이 29%로 1년 새 10%포인트 커졌다.

원화 약세에 백화점 가격 매력 부각
롯데·신세계·현대 영업익 3307억
외국인 매출 급증·명품 소비 확대
고소득층 구매력도 실적 상승 견인

환율이 순풍이었다. 원·달러 평균 환율은 1분기 1490.28원, 2분기 1528.21원, 3분기 1448.28원으로 줄곧 1440원을 웃돌았다.

내수도 받쳤다.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의 월평균 흑자액은 최근 1년(지난해 3분기~올해 2분기) 335만8000원으로 직전 1년보다 5만3000원 늘었다. 신세계백화점 명품 매출은 3분기 20% 증가했다.

◆면세점, 상반기엔 고환율 ‘이중고’

같은 환율이 면세점에는 역풍으로 작용했다. 면세점은 상품을 주로 달러 기준으로 매입·판매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매입 원가와 소비자의 구매 부담이 동시에 커진다. 특히 백화점에서 세금 환급 등을 적용받으면 면세점과의 가격 차이가 좁혀지거나 오히려 백화점이 더 저렴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실제 월평균 환율이 1541원대까지 치솟은 지난 6월에는 일부 면세품 가격이 백화점 판매가를 웃도는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다. 고환율로 면세점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외국인 쇼핑 수요가 백화점 등 시내 유통 채널로 이동한 것이다.

한국면세점협회 통계에도 드러난다. 환율이 가장 높았던 2분기 내국인 구매인원과 매출은 전 분기보다 각각 10.94%, 8.76% 줄었다. 외국인 구매인원은 25.82% 늘었지만 매출 증가율은 13.29%에 그쳐 객단가가 9.96% 떨어졌다. 상반기 면세점 전체 매출은 6조475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늘어나는 데 그쳤고, 2024년 상반기(7조3969억원)보다는 12.5% 적다.

면세점 고환율에 가격 경쟁력 약화
구매객 늘어도 객단가 29% 급감
다이궁 줄고 개별관광객 중심 재편
환율 안정에도 매출 회복은 숙제

다만 3분기 평균 환율이 2분기보다 5.2% 내리자 사정은 다소 나아졌다. 휴가철이 겹치긴 했지만 내국인 구매인원과 매출이 전 분기보다 각각 12.13%, 11.86% 반등했다. 9월에는 외국인 객단가가 전월 대비 3.94%, 내국인 객단가가 3.75% 올랐다. 3분기 실적을 내놓은 신라(273억원)·신세계(253억원)·현대(32억원) 면세점은 모두 영업흑자를 냈다.

속을 들여다보면 복잡하다. 외국인 구매인원은 1월 94만2429명에서 9월 126만6377명으로 34.37% 늘었는데 외국인 매출은 7866억원에서 7514억원으로 4.48% 줄었다. 객단가가 83만4699원에서 59만3341원으로 28.92% 급감한 탓이다. 8월에는 57만863원으로 연중 최저를 찍었다. 환율이 내린 3분기에도 외국인 객단가는 16.52% 떨어져 낙폭이 2분기보다 컸다.

흑자의 질도 따져봐야 한다. 신라와 신세계는 3분기 매출이 각각 10.5%, 16.3% 줄었다. 인천공항 사업권을 반납해 임차료를 덜어낸 덕에 낸 흑자다. 신세계디에프는 공항 임차료만 588억원 줄었다. 신라의 영업이익은 2분기 364억원에서 273억원으로, 현대는 62억원에서 32억원으로 감소했다. 현대백화점은 환율 변동으로 원가율이 일시적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고객 구성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대량 구매로 면세점을 떠받치던 중국 보따리상(다이궁)이 줄고 개별관광객(FIT)이 주류가 되면서 국내 면세점의 중국인 매출은 2021년 16조7479억원에서 지난해 8조2316억원으로 50.9% 감소했다. 같은 기간 면세점 1인당 평균 구매액은 263만4000원에서 42만5000원으로 급감했다.

개별관광객은 백화점과 올리브영, 편의점으로 동선을 넓혔다. CJ올리브영의 오프라인 매출 중 외국인 비중은 2022년 2%에서 지난 8월 33%로 뛰었다. 신세계백화점의 중국인 매출 비중이 2019년 77.5%에서 올해 상반기 48.5%로 낮아진 것도 같은 흐름이다. 9월 매출의 73%를 외국인에게 의존하는 면세점으로선 객단가 하락이 곧 외형 정체다.

유통업계에서는 4분기 또다시 환율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13일 원·달러 환율은 1363.45원으로 2분기 평균보다 10.8% 낮다.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 백화점은 외국인 수요 둔화를 걱정해야 하고 면세점은 가격 경쟁력을 되찾을 여지가 생긴다는 주장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이지스함부터 수출 군함까지”… ‘특수선 10조 시대’ 닻 올린다

르포

HD현대중공업 조선소

600t 무인함 진수·이지스함 건조 한창
도크 재편해 생산능력 2~3배 확충
필리핀 함정 12척 수주·6척 조기 인도
해외 현지 건조로 2035년 10조 목표

HD현대가 글로벌 함정 수요 확대에 맞춰 울산 조선소의 특수선 생산능력을 2~3배 확충하고 해외 현지 건조를 확대한다. 이지스구축함 전용 도크와 옛 HD현대미포의 대형 도크를 재편하는 한편, 울산 직접 수출과 해외 현지 생산을 병행해 오는 2035년 특수선 매출 10조원 달성을 추진한다.



지난 8월 페루 시마(SIMA)조선소에서 케이코 후지모리(Keiko Fujimori) 페루 대통령(사진 오른쪽에서부터 열두번째)을 포함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HD현대중공업과 시마조선소가 공동으로 건조한 ‘침보테(Chimbote)함’ 진수식을 진행했다. /HD현대

◆ 이지스함 도크·옛 미포 도크 재편… 울산 생산능력 2~3배 확충

지난 12일 찾은 울산 HD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는 국내 해군 함정과 수출용 함정 건조가 한창이었다. 이날 진수된 600t급 무인수상함(ASV) 뒤편에는 오는 12월 인도를 앞둔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 2번함 ‘다산정약용함’이 막바지 작업 중이었다. 인근에서는 필리핀 해군에 인도할 2400t급 원해경비함도 건조되고 있었다.

다산정약용함이 자리한 6번 도크는 현재 이지스구축함 전용 시설이다. HD현대중공업은 해당 함정의 인도 이후 이곳에 수출용 함정을 투입하고, 향후 함정사업부 전체 생산시설을 재배치할 계획이다.

최태복 HD현대중공업 상무는 “6번 도크에서 현재 물량이 빠지면 필리핀 수출용 원해경비함 등 후속 물량을 건조하고, 이후 함정사업부의 전체 레이아웃을 다시 잡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옛 HD현대미포의 대형 도크 2개도 향후 해군이 발주하는 대형 수상함 건조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울산 특수선 생산능력을 2~3배 확대한다. 잠수함 건조 시설 확충과 디지털 생산체계 전환도 추진한다. 무인전력과 유·무인 복합전력 확대에 따라 변화하는 해군 함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사장은 “특수선 사업의 세계 시장이 넓어짐에 따라 생산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옛 HD현대미포와 통합했고 통합된 생산체계가 실질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올해 많은 준비를 했다”며 “해외 수출도 중동과 유럽, 아시아, 캐나다, 미국까지 확대해 특수선 사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위치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필리핀 함정 12척 수주·6척 조기 인도… 울산 건조 경쟁력 입증

현장에서 확인한 필리핀 해군의 2400t급 원해경비함은 HD현대중공업의 건조 방식과 납기 경쟁력을 보여주는 사례다. 선체 뒤편 공장에서 제작한 블록을 도크로 옮겨 조립하는 방식으로, 블록 제작 단계부터 장비와 배관 등을 설치하는 의장 작업을 최대한 앞당겨 후속 공정을 줄이고 있었다.

최태복 상무는 “블록 공장에서 의장 공사를 최대한 앞당겨 진행한다”며 “미국은 블록을 쌓고 나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016년부터 약 10년간 필리핀 해군으로부터 총 12척의 함정을 수주해 6척을 인도했으며, 나머지 6척은 건조 중이다. 최 상무는 “지금까지 모두 조기 인도해 필리핀 해군에서도 놀랄 정도였다”며 “2029~2030년이면 필리핀의 1차 함정 도입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특히 현장에서 건조 중인 원해경비함은 수출을 염두에 두고 개발한 표준 함정이다. HD현대중공업은 필리핀 사업에서 확보한 건조 실적과 납기 이력을 바탕으로 다른 국가의 유사 함정 수요까지 공략할 계획이다.

◆ 페루 현지 생산으로 남미 공략… 2035년 특수선 매출 10조원 목표

HD현대중공업은 울산에서 완성한 함정을 수출하는 필리핀 사업과 달리 페루에서는 설계·엔지니어링 기술을 제공해 현지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구매국의 자국 조선산업 육성 요구에 대응하면서 페루를 남미 주변국의 함정 수요까지 공략하는 생산 거점으로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최 상무는 “페루는 안정적으로 기술을 확보하면서 건조해야 하기 때문에 필리핀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면서도 “페루 현지 건조가 성공하면 울산에서 건조하는 방식이든 현지에서 건조하는 방식이든 구매국의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HD현대중공업은 국내 생산시설 확충과 해외 현지 건조 확대를 통해 오는 2035년 특수선 부문 연매출 10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울산=유혜온 기자 dhaledhale@



“韓 회계투명성 20위권 진입 목표 감사품질 지키는 선에서 경쟁해야”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메트로경제와의 인터뷰 중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인터뷰 | 최 운 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

“회계투명성을 20위권 안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지난 13일 서울 서대문구 한공회에서 메트로경제와 만나 오는 17일 서울에서 개막하는 세계회계사대회(WCOA)에서 한국의 회계개혁 경험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1904년 시작된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까지 사흘간 해외 대표단 800여 명을 비롯한 국내외 회계전문가들이 인공지능(AI)과 지속가능성 공시 등 업계 현안을 논의한다.
최 회장은 2017년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되면서 감사인의 독립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의 회계투명성은 올해 70개국 중 55위에 머물렀다. 그는 기업이 감사인을 직접 고르는 시장에서도 회계사가 경영진과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며, 저가 수임 경쟁이 감사시간과 절차를 줄이는 데까지 이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20위권 들어오면 유지할 명분 없어” …지정제 만든 회장의 조건

최 회장이 외감법 개정 당시 주목한 건 감사 계약을 갱신하는 순간이었다. 회계처리를 두고 경영진과 이견이 생겼을 때 이듬해 계약을 잃을 수 있다면 감사인이 소신을 지키기 어려워진다. 대주주와 경영진이 감사인 선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기업에선 그 압력이 더 크다고 봤다. 상장사 등 적용 대상 기업이 일정 기간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뒤 금융당국이 지정한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이런 문제에서 출발했다.

내일 ‘세계회계사대회’ 첫 한국 개최
감사인 지정제 도입으로 독립성↑
올해 韓 회계투명성, 70개국 중 55위

감사품질 저하 우려되는 사례 대해
금감원 감리 필요성 검토 요청 추진

그는 “미국에선 필요한 감사 비용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회계사 스스로 계약을 거절하고, 부실감사가 드러나면 투자자가 책임을 묻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한국의 회계투명성 순위를 경제 규모에 걸맞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20위권 안으로 들어오면 사실 이걸 유지해야 될 명분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회계투명성 평가에서 한국은 한때 37위까지 올랐으나 올해는 70개국 중 55위에 그쳤다. 지정 기간을 마친 기업이 감사인을 다시 고르는 시장에선 회계법인 간 저가 수임 경쟁도 벌어지고 있다. 최 회장은 보수를 낮춰 계약을 따낸 뒤 그에 맞춰 감사시간과 절차까지 줄이면 투자자가 믿고 볼 재무정보의 품질이 떨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최근 대형 회계법인 대표들을 만나 감사품질을 지킬 수 있는 수준에서 경쟁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공회는 감사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사례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감리 필요성 검토를 요청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 회장은 기업에도 감사에 들이는 돈을 기업가치를 높이는 투자로 봐달라고 당부했다. 재무정보를 믿을 수 있어야 투자자가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민간위탁 14조6000억원…“어떻게 쓰였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지난 6월 연임한 최 회장이 두 번째 임기의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것은 회계기본법 제정이다. 여러 법률과 부처에 흩어진 회계처리·감사·공시·감독의 기본 원칙을 세우자는 구상이다. 같은 법인에 관할 부처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문제를 줄이고, 소규모 단체가 비슷한 자료를 여러 곳에 내는 부담도 덜 수 있다고 봤다. 관련 법안은 여야에서 각각 발의됐다.

그가 회계 사각지대의 사례로 든 곳은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이다. 지자체가 민간에 공공서비스 운영을 맡기고 예산을 지급하지만, 집행 내역을 외부 회계감사로 검증할지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다. 최 회장은 사업 규모가 연간 14조6000억원에 이른다며 “어떻게 사용되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회계감사를 세무사의 결산서 검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최 회장은 지역에 따라 검증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방자치법에 회계감사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봤다. 민간에 예산을 맡긴 뒤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하는 일까지 위탁사업을 관리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이라는 설명이다.

◆ AI가 가져간 첫 일감…신입은 어디서 실무를 배우나

서울 대회에서 최 회장이 해외 회계업계의 경험을 듣고 싶다고 꼽은 분야는 AI다. 그는 미국 등 해외 회계업계가 AI 활용에서 앞서 있다며, 기술이 어디까지 회계사의 업무를 바꿀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내에선 투자 여력이 다른 대형 법인과 중소 법인 사이에 대응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최 회장은 중소 회계법인들이 개별 법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개발비를 나눠 AI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며 한공회도 개발과 보안 대응을 지원할 방안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AI가 대신하기 시작한 자료 수집과 대조는 수습회계사가 처음 맡아온 일이기도 하다. 신입은 그 일을 하면서 기업의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감사인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배웠다. 반복 업무가 줄면 법인은 당장 신입을 덜 뽑을 수 있다. 몇 년 뒤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감사의견에 책임질 사람을 어떻게 기를지는 별개의 문제다. 최 회장은 회계법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신입을 채용하고 육성해 달라고 설득하고 있다.

회계기본법 제정 최우선 과제 꼽아
지자체 민간위탁 ‘회계 사각지대’
年 14.6조 사업… 국민 알 권리 있어

서울대회서 해외업계 AI 경험 알고파
장기적 안목으로 신입 채용·육성해야

지속가능성 공시의 제3자 인증 등
재무제표 감사 넘어 시장 확장 전망

선발 규모도 실제 수습 수요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올해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는 1150명이다. 한공회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진행한 연구에선 현시점의 적정 선발 규모가 900~1000명으로 제시됐다. 최 회장은 금융당국에 900~1100명처럼 범위를 정해 채용 여건에 따라 인원을 조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인터뷰 도중 그는 한 금융지주 회장과 나눈 대화를 꺼냈다. 이 회장은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를 행원으로 뽑아 장차 은행장 후보로 키우고 싶다고 했다. 기업의 숫자를 읽는 능력이 은행 경영에서도 경쟁력이 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자신도 시험에 합격한 뒤 학계와 금융정책 분야에서 일했다며 올해 합격증 수여식에서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반드시 회계감사만 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 재무제표 밖으로 넓어지는 검증…기후·노동 전문가와 한 팀

최 회장이 회계사의 일이 넓어질 분야로 꼽은 것은 지속가능성 공시의 제3자 인증이다. 기업이 공개한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노동 관련 정보가 어떤 근거와 절차를 거쳐 산출됐는지 외부 전문가가 확인하는 일이다. 그는 해외 거래에서 이런 정보를 요구받는 국내 수출기업이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봤다. 회계업계에는 재무제표 감사에 버금갈 만큼 중요한 시장으로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업이 공개하는 숫자의 근거를 따지려면 회계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 최 회장은 회계법인이 인증을 주도하되 기후와 노동, 지배구조 전문가가 검증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회계사가 공시의 근거와 검증 절차를 살피고, 배출량 산정 방식처럼 분야별 지식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전문가가 들여다보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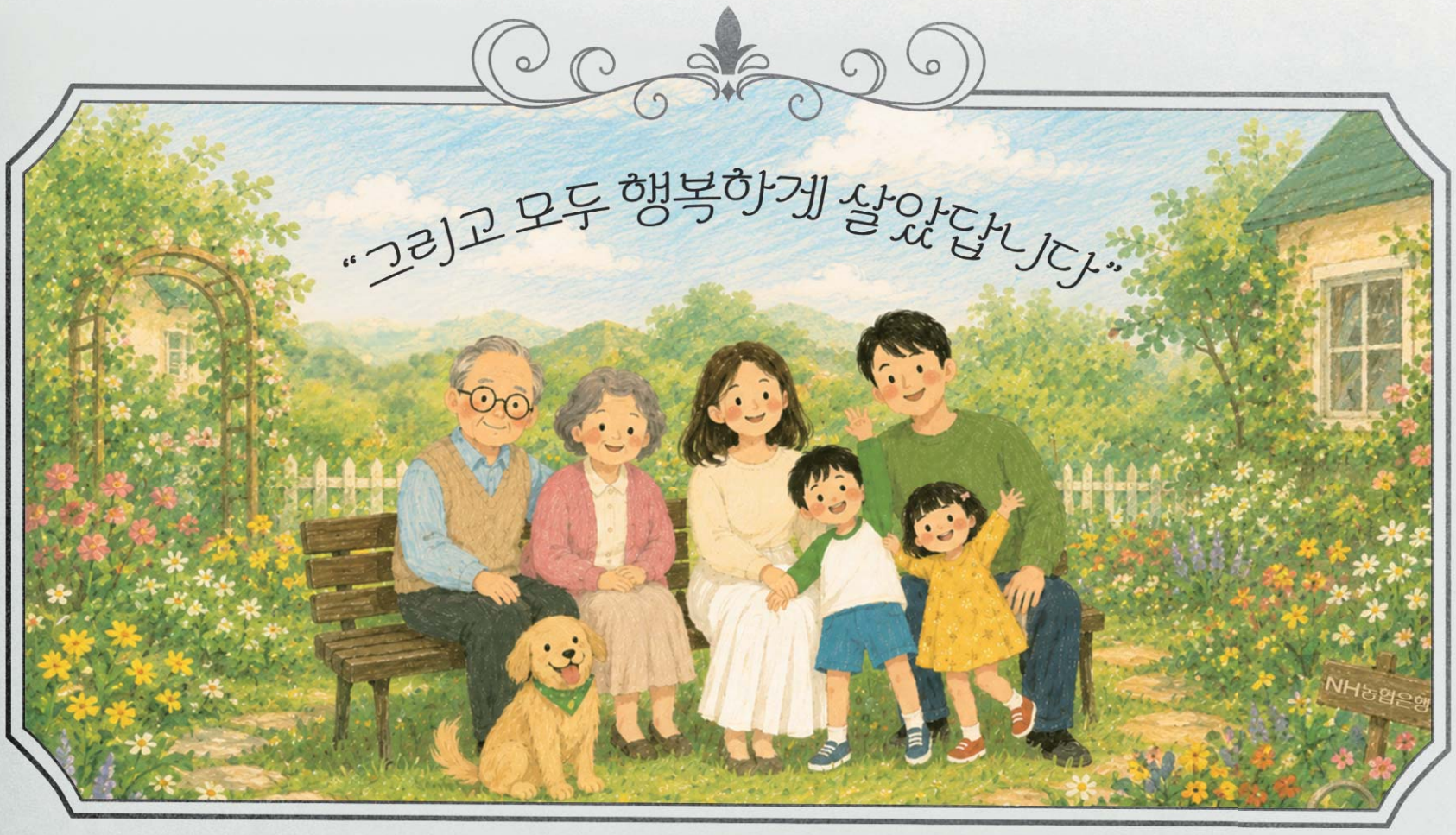
그는 기존 감사시장에도 성장 여지가 있다고 봤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외부 검증이 필요한 곳은 늘어나는 만큼, 회계법인이 계약을 따내기 위해 보수부터 깎기보다 제대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우리 회계사들이 정말로 원칙을 지키면 감사시장도 계속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와 인터뷰를 가진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상상속 이야기?
당신의 상속이야기!

| NH 사랑THE 유언대용신탁 |

당신의 소중한 유산이 갈등으로 변하지 않고
온전히 행복으로만 이어지도록

NH 사랑THE 유언대용신탁이
당신의 뜻을 지키겠습니다

NH 사랑THE 종합유언대용신탁
금전, 부동산, 증권 모두 신탁 가능
NH농협은행 대표 신탁
*가입금액: 금전 5천만 원 이상 / 금전 외 신탁재산 합산 1억 원 이상

NH 사랑THE 금전유언대용신탁
금전만으로 간편하게 신탁 가능
소액부터 시작 가능한 모두의 신탁
*가입금액: 금전 5백만 원 이상 ~ 5천만 원 이하

• 금융투자상품(신탁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자산가격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은 민법의 유류분 청구권이 보장됨에 따라 유류분 침해와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을 통한 상속 시 관련 법에 따라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신탁계약의 기본보수는 신탁원본 0.3% 1회 선취(단, 최저기본 보수 50만원), 생전개별 신탁보수는 신탁재산별 보수 발생(개별신탁계약에 따름), 사후 신탁보수는 위탁자 사망 후 신탁재산 관리·처분·지급 보수입니다. • 계약을 체결하기 전 운용방법의 지정, 해지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신탁계약서(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당행은(위험성, 수수료, 해지방법 등)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부가서비스는 업체의 사정에 따라 다른 서비스로 대체되거나 조기종료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담당부서 : 신탁부]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4564(2026.08.13~2027.08.12)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26-04161호(2026.09.01~2027.08.31)

NH농협은행

27조 삭감 vs 총량 유지… 내년도 예산안 심사 험로 예고

미래대응기금 두고 여야 입장차
국힘, 현금 살포 예산 등 감액 시도
민주, 예산 총량 지키며 사업 조정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가 이번주 내년도 예산안을 주요 사업별로 증·감액을 심사해 결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를 가동하는 가운데, 미래대응기금 등 주요 쟁점을 두곤 여전히 여야의 입장차가 커 다음달 2일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결위는 16일부터 예산조정소위를 열고 예산안 주요 사업 심사 일정에 돌입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820조9000억원 규모로 올해 예산안보다 12.8%했고, 이중 정부는 반도체 초과세수로 인한 초과세수를 일종의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기 위해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했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은 '2027년 예산안 심사 방향' 자료에서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원 전액 국채상환 ▲지방교부세 30조5000억원 지방정부에 복구 ▲현금살포·생색내기 예산 대대적 삭감 등을 주장하고 나서며 정부 편성 예산안의 전면적인 칼질을 예고했다.

이들은 대표적으로 미래대응기금(162조3000억원), 협동조합사업(819억원), 사회연대경제사업(633억원), 청년문화예술패스(7925억원), 청년미래적금(1조7000억원),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1조8210억원),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83억원) 등을 삭감이 필요한 예산으로 언급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 최대 쟁점인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유상범 예결특위 야당 간사는 지난 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7 예산안 토론회'에서 "미래대응기금은 미래 세대를 위한 저수지가 아니라 재정 통제를 우회하는 수단"이라고 감액 심사를 예고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들 사업을 중심으로 27조원 이상의 예산을 감액하고 청년·안전·생업·일자리·생활 불안 해소에 11조5924억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주요 증액 사업은 사립대 반값 등록금, 소방 안전 지원 확대, 범죄 피해자 보호, 소상공인 지원, 농어업인 경영부담 완화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협의 과정에서 세부 사업에 대한 증·감액은 있을 수 있어도 82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규모 총량은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국가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꾸는 약속"이라며 "민주당은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민생 예산을 완성해, 반도체 호황의 온기가 모든 국민의 일상으로 전해지도록 흔들림 없이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태호 예결위 여당 간사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미래대응기금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 자당 의원들에게 설명하며 "미래대응기금을 만든 것에 대해 비판하는 분들이 있는데, 미래대응기금은 미래 성장을 위한 준비이자 투자이고 국가 부채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함"이라며 "재정이 줄어들 위험에 대비해 재정의 안정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간사는 "미래대응기금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 (특히) 어린이 급간식비 지원을 고민 중"이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 급·간식비가 차별적으로 지원이 됐던 부분과 초·중·고등학교의 열악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프라 투자도 고민 중이다. 5차 철도 계획이 확정될 것인데,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고 대한민국 전국토를 대개조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며 "지방교부세를 늘리기 위해 적극 협상하고 있고 확충해서 지방주도 성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관련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회복할 것"이라며 "안전한 사회 투자 관련 해킹 방지와 소방 관련 예산은 예산 정국 때 올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여야는 이번주 19일 본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원내 지도부 간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19일에 본회의에 열고 민주유공자법, '주택공급활성화 3법(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용산공원특별법)', 방송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민주유공자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실시한다고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특히,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은 공공 재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게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하자고 말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민간 재개발사업 시행자도 용적률을 최대 1.3배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김민석 체제' 흔드는 친청계… 與 갈등 격화

친청계, 지도부에 대한 압박 수위 높여
친명·친석계, 최민희 최고위원 제명 요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한 이성윤(왼쪽부터), 한민수, 최민희 최고위원이 지난 13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쇄신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취임 100'일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가운데, 친청(친정청래)계의 반발이 거세지며 당 리더십을 두고 본격적인 계파 간 투쟁의 서막이 오를 전망이다.

김민석 지도부의 5명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서 친청계는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인데, 이들은 김 대표의 '반·분·신(反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제3자 비밀연합' 주장을 공개 최고위원회 등에서 비판해왔다.

친청계는 반분신 의혹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의원총회에게 사과한 김 대표와, 이후 이뤄진 비공개 방식의 '당원 정비 TF' 신천지 교인 당원 집단가입 의혹 조사 결과 열람 방식을 두고도 반발하며 동력을 모았다.

이들은 김 대표의 취임이 열흘 정도 남은 지난 13일 오전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리는 공개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고 소통관 기자회견장을 찾아 "윤리감찰 대상은 김 대표"라며 직격했다.

친청계의 기자회견 전날(12일)엔 최민희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탄핵에 반대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지역구 당원 비공개 간담회에서 말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에 감찰 조사를 지시했으며 청와대도 최 최고위원의 해당 발언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했다.

친청계의 공세는 거셌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객관적으로 보고서를 검토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도대체 정청래 전 대표가 신천지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비밀연합으로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는 것인가란 증거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당원 정비 TF 조사) 보고서의 한 항목이 아예 정청래 전 대표와 신천지 연관성 항목이었다"고도 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제 기준을 거주와 비거주 상관 없이 14억원으로 상향하자는 의견을 모으는 것과 관련 "정부의 부동산 개혁을 돕지는 못할 망정, 발목 잡아서 되겠나"라고 질타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15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을 두고 "그동안 민주당은 어떤 사안에서든 진상규명과 책임을 요구해왔다"며 "반·분·신 3자 비밀연합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조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대표의 공약, 주장, 정책에 대해 반발하며 압박하고 있는 친청계는 이번주 최고위원회의, 다음주 김 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입장을 내고 당권 투쟁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전 대표는 지난달 말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민석 대표 체제 100일 이후) 그때 어떤 깃발을 들 건지, 그 깃발에 어떤 글씨를 쓸 건지 지금 하나하나 생각하고 글을 써놓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 내 일부 친명(친이재명)·친석(친김민석)계도 친청계를 대상으로 '최민희 최고위원 제명'이라는 강도 높은 주장을 펼치며 당내 갈등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친명 지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경기도 조직인 더민주경기혁신회의는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최 최고위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입장을 냈다.

당 내 중진이자 원로인 우원식 전 국회의장과 박지원 의원 등이 당 내 분란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김 대표와 정 전 대표가 만나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김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서 나와 '대화로 풀어가는 것이 좋겠다'며 정 전 대표와 만날 의사를 보이자, 정 전 대표는 "'사과의 3원칙'이 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라. 피해자에게 직접 말하라. 재발 방지책을 분명하게 말하라"며 "일단 사과부터 제대로 하시라"며 선을 그었다.

/박태홍 기자

李 아시아 순방길… 미중 외교 '시험대'

오늘부터 아세안·APEC 회의 참석
트럼프·시진핑 접촉 여부 주목
美 대중 반도체 규제 강화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16~19일 아시아 지역 순방길에 오르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AI) 패권 경쟁 속에서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미중 정상을 모두 만날 가능성이 열려 있어, 이 대통령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6~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18~19일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한다.

이번 무대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미중 정상과의 접촉 여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세안과 APEC에 모두 참석할 예정이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APEC 정상회의 의장국 정상으로서 각국 정상을 맞이한다. 양자 정상회담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다자외교 무대에서 약식 회동(풀어사이드)이나 비공식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순방의 관건은 미중 사이에서 단순히 균형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의 경제·안보 이익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첨단산업 협력을 확대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협력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한 소통을 이어가는 실용외교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제는 현재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무역과 안보를 넘어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의 중국 정보기관 관련 의혹이 불거지면서 미국의 대(對)중국 기술 통제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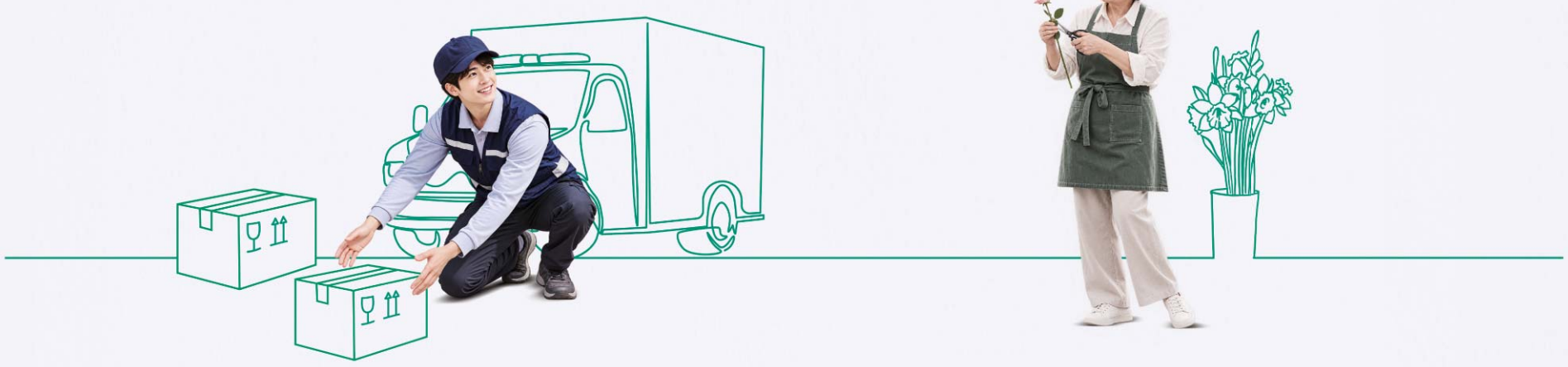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는 우리나라 경제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요 고객사인 만큼 미국의 규제 변화가 반도체 수요와 글로벌 공급망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과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편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한중 경제협력 확대와 공급망 안정, 한반도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경제협력과 함께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 구상을 설명하고 남북·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역내 국가들의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중국에 대화 재개를 위한 역할을 당부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오는 19일에는 선전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3자 정상회담도 추진되고 있다. 미중러가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한반도 안보 문제가 거론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우리 정부는 미중러 회담에서 '코리아 패싱'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중과 긴밀히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예진 기자 syj@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모두를 위한 하나의 금융이 내일을 위한 행복의 기회로

누구나 더 밝은 내일을 그려가도록 하나금융그룹이 포용금융으로 힘을 더합니다



하나금융그룹은 누구나 필요한 금융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금융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모두의 금융권리를 넓혀갑니다

- 청년 및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 채무자보호 및 범죄예방
-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내재화

✦ 해당 제작물은 생성형AI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비트코인 14% '뚝'… 美 빅스텝 공포, 가상자산 시장 강타

〈주간〉

긴축 우려 비트코인 6만 弗대 후퇴
이더리움 등 알트코인 두자릿수↓
10월 CPI 상승률 등 긴축전망 확산
투자심리 지수 '극단적 공포' 수준


따능 AI 생성 이미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알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

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긴축을 시사한 가운데 오는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p)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하면서 가상자산 가격을 끌어 내렸다.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최근 일주일 새 14% 넘게 하락해 6만 달러 중반까지 내렸고, 주요 알트코인도 급락했다.

15일 가상자산 시황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이날 정오께 1BTC당 6만4748달러에 거래됐다. 24시간 전과 비교해 2.79% 내린 가격으로, 주간 가격 하락폭도 14.43%에 달한다. 비트코인은 이달 초까지 8만 달러를 넘겨 거래됐는데, 미 연준이 추가 긴축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주요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자산)도 급락했다. 이날 가상자산 시총 2위 이더리움(ETH)은 지난 주 대비 18.65% 내린 1818달러에 거래됐고, 같은 기간 시총 3위 바이낸스도 14.6%의 하락을 기록했다. 4위 리플(XRP)과 5위 솔라나(SOL)는 각각 16.36%와 19.98%의 가격 하락을 기록했다.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한 것은 미 연준 인사들이 강도 높은 긴축을 암시하고 있어서다. 통상적으로 가상자산 가격은 시장 유동성이 늘어나는 금리 인하기에 가격이 상승하며, 금리 인상기에는 시장 유동성 감소에 따라 가격이 하락한다.

앞서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상대로 개선되더라도,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의 25bp 인상을 지지할 것"이라며 "경제활동은 강하고 노동시장은 안정됐지만,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은 FOMC의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돌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해당 발언은 같은 날 미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제시됐다.

이어 그는 "10월의 지난 두 달과 유사하게 근원 CPI 상승률이 0.3% 부근이거나 그 이상으로 나타난다면, 더 강력한 정책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라며 "그럴 경우 12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미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10월 CPI(근원 CPI)는 0.3% 상승을 기록해, 시장 전망치인 0.2%를 웃돌았다.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도 같은날 "현재 경제 전망을 고려한다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최소 두 차례의 25bp 금리인상을 단행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하다"라며 "목표치를 웃도는 인플레이션이 오래 지속되면 경제주체들의 행동에 고착할 위험이 커진다"라고 강도 높은 긴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로건 총재는 올해 연준의 순환 투표권을 가진 4명의 지역 연준 총재 중 한 명이다.

미 연준의 강도 높은 긴축 전망이 확산하면서 시장 내 투자심리도 최저 수준으로 치달았다.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심리를 나타내는 '공포-탐욕 지수'는 최근 12까지 하락해 '극단적 공포' 단계를 나타냈다. 공포 탐욕 지수가 '극단적 공포' 수준을 나타낸 것은 금리 인상 우려와 코인 비축 기업의 대규모 매도 우려가 불거졌던 지난 6월 초 이후 5개월 만이다.

전문가들은 연준의 금리 경로가 향후 가상자산 가격을 결정할 것으로 분석했다. 긴축이 지속되면 가상자산 가격이 더 내릴 수 있다고 분석하는 한편, 인플레이션 해소에 따른 상승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BTSE의 제프 메이 최고운영책임자(COO)는 "가상자산 가격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자 12월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가정 때문에 하락했다"라며 "연준이 예상된 0.25%p 대신 0.50%p의 금리 인상에 나선다면 가상자산은 더 큰 하락 여지를 가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기술 기업 ViaBTC의 제프 고 수석분석가는 "시장은 11월 말 발표될 개인소비지출(PCE)와 12월 9일 FOMC 직후 공개될 점도표를 주시하게 될 것"이라며 "혹은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가 (유가 상승에 기인한) 인플레이션을 빠르게 낮추는 시나리오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빚투' 확산… 마통 잔액 4년여 만에 최대

5대 시중은행 잔액 44.2조 기록
입출금 등 요구불예금 두달째↓
증시 변동성에 유동성 확보 움직임

국내 증시가 조정 국면을 이어가는 가운데 5대 시중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44조원을 넘어서며 4년3개월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주가 반등을 기대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대출을 활용해 투자 자금을 확보하면서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 12일 기준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44조263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8월 말(44조7699억원) 이후 4년3개월 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

지난달 말(43조5950억원)과 비교하면 12일 만에 6682억원(1.5%) 증가했다. 이 달 증가액은 10월 한 달 증가액인 6115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지난해 말(39조9275억원)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 4조3357억원(10.9%) 불어났다.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증가하면서 약정 한도 대비 실제 사용액을 나타내는 소진율도 높아지고 있다.

A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소진율은 지난해 말 43.0%에서 지난달 말 47.3%로 상승한 데 이어 이달 12일에는 48.0%까지 올랐다. 지난해 말보다 5.0%포인트(p) 상승하며 약정 한도의 절반에 근접했다.

B은행 역시 같은 기간 소진율이 40.2%에서 45.1%, 46.1%로 높아졌다. 올해 들어 상승 폭은 5.9%p에 달한다.

반면 은행에 머무는 대기성 자금은 감소하는 추세다.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지난 12일 기준 656조4744억원으로 지난달 말(663조3524억원)보다 6조8780억원(1.0%) 줄었다.

지난달에도 12조1725억원 감소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9월 말 이후 빠져나간 자금은 19조원을 넘어섰다.

요구불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워 투자 대기자금의 성격을 갖는다. 은행권에서는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투자자들이 주가 반등 시점에 자금을 투입하기 위해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주가가 하락할 때 저가 매수에 나서려는 수요가 마이너스통장 사용 증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전체 정기예금 잔액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5대 은행의 지난 12일 기준 정기예금 잔액은 1046조1960억원으로 지난달 말(1030조4880억원)보다 15조7080억원(1.5%) 증가했다. 지난달 24조4009억원 늘어난 데 이어 이달에도 자금 유입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를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에서 자금을 빼 은행 예금으로 이동하는 '역(逆)머니무브'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개인 고객의 단기 정기예금 신규 가입 규모는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지난달 5대 은행의 만기 6개월 이하 개인 정기예금 신규 가입액은 13조288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16조1507억원)보다 2조8618억원(17.7%) 줄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저축은행, 금리 8% 파킹통장 잇따라 출시

자금이탈 방지·고객유치 일환
기본 6%에 우대금리 등 적용

저축은행들이 연 최고 7~8%의 고금리 파킹통장을 내놓고 있다. 연말 고객 자금 이탈을 막고, 소액 자금을 주로 운용하는 2030 고객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KB저축은행은 연 최고 8% 변동금리를 제공하는 'KB팡팡 mini통장'을 운영한다. 기본금리는 예치 금액별로 30만원 이하 6%, 300만원 이하 0.6%, 3000만원 이하 0.3%, 3000만원 초과 1.0%가 적용된다.

여기에 KB저축은행의 kiwi멤버십 또는 마케팅 수신에 동의하면 0.5%포인트(p)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팡팡 KB체크카드를 월 3회 사용하면 0.8%p, 간편결제 등록 또는 자동이체 2건 이상 출금 거래를 등록하면 0.7%p 금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교보SBI저축은행은 연 최고 7.7% 금리를 제공하는 '생활파킹통장'을 선보였다. 생활파킹통장은 신규고객에게 4%의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외에도 17~39세 청년층에게 0.5%p, 토스, 카카오페이 등 페이사 결제계좌 등록한 고객에게 0.5%p 우대금리를 지급한다.

기본 금리는 예치 금액별로 200만원 이하 연 2.7%, 2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1.7%, 1억원 초과 0.2%다. 우대금리는 200만원 이하 예치 금액까지만 적용된다.

OK저축은행의 'OKx다날다모음통장' 상품도 주목할 만하다. 먼저, 기본금리 50만원 이하 분에 연 5.0% 금리를 적용한다. 500만원 이하는 연 0.8%, 5000만원 이하는 연 0.1%, 5000만원 초과는 연 1.0%다.

우대금리는 다모음캐시 결제계좌 등록 시 1.8%p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화 등 마케팅 이용 동의 시 0.2%p 금리를 지급한다.

OK저축은행 'OK웃맨 서포터즈' 통장 이용 시에도 최고 연 7%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기본금리는 OK 다날다모음통장과 동일하며, 우대금리는 4대 페이(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토스) 또는 카드 결제계좌 등록 시 1.8%p, 마케팅 동의 시 0.2%p를 각각 제공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우리은행, 폐전자가전 85t 수거 'ESG경영'

자원순환 캠페인 '스마트 펀' 성료

우리은행이 'ESG경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자원순환 캠페인을 통해 85톤에 달하는 폐전자제품을 수거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한 임직원 자원순환 캠페인 '스마트 펀(Smart Fun)'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쓰지 않는 전자제품을 올바르게 배출하고 재활용에 동참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캠페인을 추진했다. 캠페인은 본점과 영업점, 임직원 가정에서 나온 제품을 수거해 비영리법인 E-순환거버넌스가 운영하는 'ESG나눔 모두비움' 프로그램에 기부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특히 캠페인 첫날에는 정진완 우리은행 은행장도 폐전자제품을 기부하며 임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우리은행은 캠페인 기간 자동화기기 231대와 사용하지 않는 전산기기 379대, 임직원이 기부한 폐전자제품 182대 등 총 8만4905kg을 수거하고 승용차 약 63대에 버금가는 연간 탄소 배출량을 감축했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이 폐전자제품 수거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은행

/안승진 기자

KB국민은행 '비대면 상속 서비스' 선보여

서류 제출·예금지급 모두 모바일 처리

KB국민은행은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로 상속 관련 서류 제출부터 예금지급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KB스타뱅킹 비대면 상속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은행권 최초로 상속에 필요한 서류 발급부터 접수, 공동상속인 동의까지 상속 절차 전반을 비대면으로 연계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상속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지만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영업점 방문에 따른 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서비스 대상은 피상속인 명의의 KB국민은행 상속 예금 총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다만 일부 상품은 비대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만 19세 이상 상속인 중 1명이 대표로 신청할 수 있으며, KB스타뱅킹에서 영업점 방문 없이 상속예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LG, 美 세탁가전 1000만대 생산… AI 혁신으로 1위 굳힌다

테네시 공장 가동 8년 만에 대기록
현지 생산 확대로 공급 기간 단축
로봇 300대 활용, 공정 70% 자동화
'클로이드' 투입해 피지컬 AI 고도화
제조 경쟁력 앞세워 북미 입지 강화



LG전자가 지난 13일(현지시간) 테네시 공장에서 세탁가전 누적 생산 1000만 대 돌파 축하 행사를 열고, 현지 생산체계를 기반으로 다져 온 사업 성과를 기념했다. (왼쪽 두 번째부터)LG전자 박용 테네시생산법인장과 손창우 리빙솔루션사업부장, 조시 워드(Josh Ward) 카운티 산업개발위원회 총괄이사 등 내외빈이 1000만 번째로 생산된 제품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G전자

LG전자 미국 테네시 공장이 세탁가전 누적 생산 1000만대를 돌파했다. 현지 생산체계를 기반으로 미국 세탁기·건조기 시장에서 점유율 1위에 오른 데 이어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활용한 제조혁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테네시주 생산법인에서 세탁가전 누적 생산 1000만대 달성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사에는 손창우 LG전자 리빙솔루션사업부장과 박용 테네시생산법인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LG전자는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125만 4000㎡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고 지금까지 약 5억달러를 투자했다. 지난 2018년 11월 세탁기 생산을 시작으로 2022년 건조기, 2023년 워시타워까지 생산 품목을 확대했다. 현재 연간 생산능력은 세탁기 155만대와 건조기 70만대 등 총 225만대로, 2019년 대비 약 4배 늘었다.

현지 생산 확대는 미국 시장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시장조사업체 트랙라인에 따르면 LG전자의 미국 세탁기 매출 기준 점유율은 2018년 17.2%에서 지난해 23.3%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건조기 점유율도 17.4%에서 24.1%로 높아지며 두 제품 모두 1위를 차지했다.

LG전자는 현지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제품도 생산하고 있다. 북미 고객의 체형을 고려해 세탁물을 쉽게 꺼낼 수 있도록 입구를 비스듬히 설계한 통돌이 세탁기를 선보였으며, 지난해부터는 반려동물 관련 세탁 수요에 대응해 '펫케어' 코스를 기본 탑재한 제품도 생산하고 있다.

테네시 공장은 한국 창원공장의 생산 노하우와 가산 연구개발(R&D) 캠퍼스의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운영된다. 현지 생산을 통해 과거 해외 생산거점에서 미국 매장까지 10주 이상 걸리던 제품 공급 기간을 약 일주일로 단축했다. 해상운송비와 수입관세 부담도 줄였다.

테네시 공장은 지난 2023년 미국 생활가전 공장 최초로 세계경제포럼(WEF)의 '등대공장'에 선정됐다. 현재 약 300대의 산업용 로봇과 AI,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약 70%의 공정 자동화율을 확보했다.

최근에는 생산라인에 로봇 'LG 클로이드(CLOiD)'를 투입해 세탁기 상판 운반과 배수펌프 정렬·적재 작업 등을 검증하고 있다. 현장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서울 양재 데이터팩토리에서 가공해 로봇 학습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피지컬 AI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백승태 LG전자 HS사업본부장 부사장은 "LG전자 세탁가전이 북미 고객에게 꾸준히 인정받아 온 결과 테네시 공장이 누적 생산 1천만 대를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제품과 AI 기반의 제조혁신을 바탕으로 북미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현정 기자 yeon@metroseoul.co.kr

삼성, TV·폴더블 앞세워… CES '최고 혁신상' 4관왕

영상디스플레이 부문서 13개 수상
갤럭시 Z 폴드8 시리즈 최고상 석권
생활가전·반도체까지 총 19개 쾌거



CES 혁신상 로고와 수상 제품 이미지.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차세대 TV와 폴더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CES 최고 혁신상 4개를 수상하며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삼성전자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주관하는 'CES 혁신상'에서 최고 혁신상(Best of Innovation) 4개를 포함해 총 19개의 상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CTA는 매년 CES 개막에 앞서 혁신성이 뛰어난 제품과 서비스를 선정해 CES 혁신상을 수여한다. 이번 CES 2027 혁신상 수상 제품과 기술은 지난 9일(현지시간) 발표됐다.

삼성전자의 부문별 수상 내역은 영상디스플레이(VD) 13개, 생활가전(CE) 1개, 모바일(MX) 2개, 반도체(DS) 3개다. 이 가운데 가장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에 수여하는 최고 혁신상은 영상디스플레이와 모바일 부문에서 각각 2개씩 받았다.

영상디스플레이 부문에서는 2027년형 TV·사운드바·모니터 등 신제품과 서비스가 최고 혁신상 2개를 포함해 총 13개의 상을 받았다. 생활가전 부문 수상작인 일체형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는 대용량 열교환기를 적용해 단독 건조기 수준의 건조 성능을 구현했다. 구체적으로 옷감의 종류, 오염도를 감지해 적합한 코스를 제안하는 'AI 맞춤+' 기능과 세탁·건조가 끝나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오토 오픈 도어+'도 적용했다.

모바일 부문에서는 '갤럭시 Z 폴드8'과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가 나란히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다. 갤럭시 Z 폴드8은 콘텐츠 시청에 적합한 비율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 5.5형 커버 디스플레이는 숏폼 영상 시청에 최적화했으며 펼쳤을 때 사용하는 7.6형 메인 디스플레이로는 모바일 게임과 동영상을 넓은 화면으로 즐길 수 있다.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는 삼성전자 폴더블 스마트폰 가운데 처음으로 최상위 제품을 뜻하는 '울트라' 명칭을 적용했다. 8형 메인 디스플레이로 여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혔으며 5000밀리암페어시(mAh)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업무와 콘텐츠 제작, 영상 시청 등을 오래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인공지능(AI) 서버용 저전력 D램(LPDDR5X) 기반 메모리 모듈 '소캠2(SOCAMM2)'와 서버용 D램 모듈 'DDR5 RDIMM', 온디바이스 AI용 내장 메모리 'UFS 5.0'이 혁신상을 받았다.

소캠2는 높은 대역폭과 저전력 특성을 바탕으로 AI 연산 과정에서 데이터 처리 지연을 줄이고 그래픽처리장치(GPU) 활용도를 높이도록 설계됐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배터리 넘어 전력 관리"… LG엔솔, AI 데이터센터 시장 공략

북미 신재생에너지 전시회 참가
ESS·전력 운영 통합 솔루션 공개

LG에너지솔루션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확대에 대응해 배터리 공급부터 전력 관리·운영까지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을 앞세워 북미 시장 공략에 나선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는 17~1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신재생에너지 전시회 'RE+ 2026'에 참가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전시 주제는 'AI의 미래를 위한 에너지'다. 배터리 제조를 넘어 AI 산업의 전력 인프라를 지원하는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역량을 선보일 계획이다.

전시 공간은 지난해보다 약 20% 확대한 279㎡(약 84평)로, 국내 배터리 기업 중 최대 규모다. 이번 전시회에는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력망 등 분야에서 약 1300개 글로벌 기업이 참가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시 부스를 ▲AI 데이터센터 통합 전력 인프라 ▲전력망용 ESS ▲차세대 배터리 기술 ▲무정전 전력 솔루션 ▲북미 사업 역량 등 5개 구역으로 구성한다. 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와 ESS 시스템 통합, 지능형 운영 기술을 주제로 전문가 세션도 진행한다.

핵심 전시 구역에서는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무정전전원장치(UPS), 배터리백업유닛(BBU),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을 결합한 AI 데이터센터 통합 전력 인프라를 공개한다. 최근 엔비디아의 'DSX 레디 BESS' 프로그램 파트너로 선정된 성과도 소개한다.

전력망용 ESS 구역에서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기반 'JF3 AC LINK'를 선보인다. 미국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활용한 제품으로, 부지 단위 에너지 밀도를 기존보다 약 26% 높였다. 다층 안전 설계와 디지털 트윈, AI 기반 전력 안정화 기술도 적용했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 구역에서는 소듐이온 배터리와 고체변압기(SST)를 결합한 시스템을 소개한다. 잦은 충·방전과 급격한 전력 부하 변화에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무정전 전력 솔루션 구역에서는 차세대 무정전전원장치 랙 시스템과 원통형 배터리백업유닛을 전시한다.

북미 사업 역량 구역에서는 현지 생산 기반과 ESS 운영 기술을 소개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에서 50GWh 이상의 배터리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ESS 전문 법인 버텍과 통합 소프트웨어 플랫폼 '에어로스 수트'를 통해 시스템 설계·구축부터 운영 최적화, 자산 관리까지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

쏘카

10조 렌터카 시장 커지자 장기 대여사업 확대 박차

차량 운영망 활용해 신규 수요 확보

쏘카가 카셰어링 수익성 개선을 바탕으로 장기 차량 대여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국내 렌터카 시장이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존 차량 운영망을 활용해 장기 대여 수요를 확보하고 자율주행 사업으로 수익원을 넓힌다는 전략이다.

15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국내 렌터카 등록대수는 123만2698대로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개인의 신차 구매는 전년 동기 대비 3.3% 줄었다.

쏘카는 국내 렌터카 시장 규모가 2023년 8조5000억원에서 올해 10조4000억원으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가운데 단기 렌터카 시장은 약 1조원으로 추산했다.

쏘카의 올해 3분기 연결 매출은 1352억원, 영업이익은 9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 43% 늘었다. 매출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였고, 영업이익은 9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카셰어링 부문 매출은 100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8% 증가했다. 차량 이용시간은 11% 늘었고, 대당 매출은 175만원에서 198만원으로 증가했다. 매출 대비 간접비 비율은 16.8%에서 13.6%로 낮아졌다. /이승혁 기자 sh95@

두산에너빌리티

발전설비 진단 AI 접목 정비 효율·안정성 강화

두산에너빌리티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발전설비 진단·정비 기술을 발전사들과 공유하며 디지털 서비스 역량 강화에 나섰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12~13일 경남 창원 본사에서 국내 주요 발전사와 산학 전문가를 초청해 '2026 발전운영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발전운영기술교류회는 발전설비 운영 경험과 최신 기술을 고객사와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복합발전 사업 현황과 공급 대응 전략 ▲AI 기반 원격감시·진단 ▲AI 활용 미세균열 탐지 ▲발전 분야 AI 데이터 구축 및 활용 사례 등이 소개됐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가 자체 개발한 예측진단 솔루션 '프리비전'을 비롯해 AI 기반 비파괴검사와 발전설비 기술자료를 활용한 운영·정비 지원 기술 등 실제 적용 사례가 공유됐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 등 발전설비 공급 확대와 함께 장기서비스 및 디지털 솔루션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운전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예측정비와 AI 기반 비파괴검사 등을 통해 설비 안정성과 정비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유혜온 기자

HD현대, 무인수상함 기술역량 입증… 글로벌 항해 속도낸다

600t급 ASV 진수… 안두릴 협력
시제품 통해 건조시간 대폭 단축
해상 실증 거쳐 사업화 본격 추진



HD현대-안두릴 ASV 진수식 단체 사진. /HD현대

HD현대가 미국 방산기업 안두릴과 공동 투자·개발한 600t급 무인수상함을 약 1년 만에 건조하며 글로벌 무인함정 시장 공략에 나섰다. 기업 주도로 시제품을 선제 제작해 개발 기간을 대폭 단축했으며, 한·미 해상 실증을 거쳐 국내외 사업화를 본격 추진한다.

HD현대는 지난 12일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안두릴과 공동 개발한 경하중량 600t급 중형 무인수상함(ASV) 진수식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협약 체결 이후 약 1년 만에 실물 건조를 마친 것이다.

이번 함정은 국방과학연구소(ADD)와 체계업체 중심의 단계적 개발 방식과 달리, 양사가 자체 투자로 시제품을 선제 제작해 성능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최태복 HD현대중공업 상무는 "업체가 먼저 시제품을 제작해 시장에 제시하는 안두릴의 사업 방식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3년 걸리는 함정 설계·조달·건조·시운전을 1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절차를 전면 수정했다. 형상과 제원 확정 후 자재를 발주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추진 체계 등 핵심 장비의 수급 기간을 먼저 검토하고 글로벌 공급망에 맞춰 설계를 조정했다.

장준호 HD현대중공업 수석은 "기존과 다른 설계·조달 방식에 위험 부담이 있었지만, HD현대가 축적한 선박 설계·건조 노하우를 바탕으로 적기에 장비를 확보해 공동 건조를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무인수상함의 두뇌는 HD한국조선해양의 함정 자율화 통합 솔루션 '브이에이원(VAone)'과 안두릴의 임무 자율화 플랫폼 '래티스(Lattice)'가 맡았다.

브이에이원은 상선 500척 이상에 적용된 아비커스의 자율항해 솔루션 '하이나스(HiNAS)'에 기관 자율화·손상통제 기능을 통합한 시스템이다. 목적지 이동뿐 아니라 운항 전 기관 상태·연료량 점검과 운항 중 위험 감지·대응까지 자동화했다. 김형택 HD한국조선해양 함정기술연구소장(상무)은 "항해뿐 아니라 승조원의 기관 운용 업무까지 자동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안두릴의 래티스는 임무 수행과 무장 운용을 지원한다. 함정은 임무와 고객국 요구에 따라 무장·센서를 교체할 수 있는 모듈형 구조다. 적 함정 탐지·정보 전달과 발사 명령 이후 무장 운용은 자동화하되 미사일 발사 여부는 운용자가 결정한다.

양사는 한미 해역에서 순차적으로 성능을 검증한다. 김형택 상무는 "울산 해역에서 약 3개월간 시운전한 뒤 미국으로 이동해 임무 자율화 기능 등을 검증할 계획"이라며 "내년 상반기 시험 완료가 목표"라고 말했다.

HD현대는 국내 무인함정 시장 진출도 타진한다. 최태복 상무는 향후 한국 해군의 중대형 무인수상함 수요를 전망했다. 현재 해군과 플랫폼 기술·활용 방안을 공유하며 시험사업 등 협력 가능성을 논의 중이다. 아울러 브이에이원을 자체 설계·건조하는 국내외 유인함정에도 순차 적용해 승조원의 운용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사장은 "이번 진수는 함정 건조 역량과 무인 운항 기술력을 결합한 성과"라며 "기술 고도화로 무인수상함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말했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중진공·한유원, 새 수장 맞이… 혁신 비전 공유

중진공 박재호·한유원 최원영 취임
체감할 수 있는 기업지원 등 포부 밝혀


박재호 중진공 이사장


최원영 한유원 이사장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 수장이 나란히 채워졌다. 중진공은 한유원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15일 이들 기관에 따르면 박재호 전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경남 진주 중진공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현장에서 답을 찾고, 중소벤처기업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진공'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기업 현장과 직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 강화 ▲변화와 성장을 체감할 수 있는 기업 지원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 운영을 '3대 방침'으로 제시했다.

박 이사장은 "기업을 둘러싼 환경은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그만큼 중진공에 거는 기업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면서 "위기의 순간에는 언제나 기업의 곁을 지키고 도약의 순간에는 한 발 앞서 길을 여는 중진공을 만들기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59년생으로 부산 출신인 박 이사장은 부산외대 불어과를 졸업했다. 서석재 전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한 후 김영삼 대통령 시절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 등을 거쳤다. 그 후 국민체육진흥공단 상임감사와 이사장을 지낸 후 제20·21대 국회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펼쳤다.

같은 날 한유원 제14대 대표이사에는 최원영 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취임했다.

최 대표는 취임사에서 한유원을 대체불가 '국가대표 마케팅 정책 전문기관'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한 기관 정체성 재정립 ▲지속 가능 경영체계 마련 ▲마케팅 기능 변화를 통한 정책 기능 역할 강화 ▲일 잘하고, 일하기 좋은 조직으로의 성장을 '4대 미래 방향'으로 제시했다.

최 대표는 "한유원은 중소벤처·소상공인의 '마케팅 정책 전문 공공기관'이 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선 기업의 성장과 성과를 중심으로 기관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성장단계, 제품 특성별 '맞춤형 지원'과 공공구매 제도가 혁신기업의 '성장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한유원의 정책 기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71년생인 최 신임 대표는 서울대 기계공학과 졸업 후 기술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중기부 전신인 중기청에서 기술개발과장, 인력개발과장 등을 거쳤다. 주미얀마 대한민국 대사관 경제참사관 경력도 있다. 이후 중기부에서 해외시장총괄담당관, 벤처혁신정책과장, 부산지방중기청장, 글로벌성장정책관 등을 역임하며 수출, 금융, 판로, 소상공인 등 분야를 두루 거쳤다. /김승호 기자 bada@


지난 13일 청주가경터미널시장에서 열린 홈앤쇼핑 주최 '소상공인 e커머스 세미나'에 앞서 (왼쪽부터)중기중앙회 황영만 소상공인정책실장, 이은지 공제마케팅실장, 가경터미널시장 임헌섭 상인회장, 충북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협의회 김진상 부회장, 이연희 국회의원, 청주시청 염창동 재정경제국장, 홈앤쇼핑 이현승 중소기업지원본부장, 중기중앙회 임춘호 충북지역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홈앤쇼핑

홈앤쇼핑, 전통시장 우수상품 판로 확대

'소상공인 e-커머스 세미나' 성료

홈앤쇼핑이 전통시장의 먹거리 등 판로를 추가로 지원한다.

홈앤쇼핑은 지난 13일 충북 청주 충북기업진흥원에서 청주가경터미널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e-커머스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홈앤쇼핑이 추진하는 '시장가자-GO 프로젝트' 일환으로 올해 다섯 번째 행사다.

홈앤쇼핑은 세미나를 통해 가경터미널시장이 가진 먹거리와 상품 경쟁력이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에서도 새로운 소비자를 만날 수 있도록 판로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에 그치지 않고 홈앤쇼핑이 보유한 유통·방송 역량을 활용해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알리는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전통시장의 우수한 상품이 더 많은 소비자를 만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로 확대와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신영수 "국내외 물류사업 수익구조 개선"

〈CJ대한통운 대표〉

CJ대한통운 창립 96주년

신 대표, 실질적 성장 창출 강조

신영수 CJ대한통운 대표가 창립 96주년을 맞아 국내외 물류사업의 수익구조를 개선해 성장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신영수 대표와 주요 경영진, 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96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신 대표는 기념사에서 "그동안 미래 성장을 위해 추진해 온 투자와 혁신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할 시점"이라며 "이제는 외형 성장에 안주하지 않고 사업 전반의 수익구조를 개선해 성장의 질을 한 단계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오네(O-NE)의 독보적인 시장 리더십을 중심으로 배송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풀필먼트와 수송 등 주요 사업의 성장과 수익성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사업 간 연계를 확대하고 E2E(End-to-End) 서비스 역량을 강화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CJ대한통운은 올해 미국 엘우드 물류센터 운영을 시작해 해외 물류망을 넓혔다.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를 물류현장에 투입하는 등 자동화 기술 적용도 확대하고 있다. /이승혁 기자 sh95@


신영수 CJ대한통운 대표가 지난 12일 열린 창립 96주년 기념식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기념사를 하고 있다. /CJ대한통운

중기중앙회, 19일 '2026 백두포럼' 개최

중소기업 글로벌화 전략 논의

중소기업중앙회가 오는 19일 일본 도쿄 힐튼 오다이바 호텔에서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4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2026 백두포럼'을 열고 중소기업 글로벌화 전략 등을 논의한다.

15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포럼은 '중소기업 글로벌화 전략과 백두포럼 16년의 성과'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과 토론을 통해 중소기업 글로벌화 방안과 포럼의 미래를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선 오랜 기간 해외시장을 개척해 온 수출선도기업부터 최근 해외진출에 나선 기업, 해외진출 협동조합 등이 참여해 글로벌화 성공사례와 해외시장 진출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과 일본 양국 콘크리트 업계의 지속적인 교류협력 사례를 소개하고 정부 및 중기중앙회 차원의 해외진출 지원 필요사항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백두포럼의 지난 16년간 성과를 돌아보고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포럼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더 해나갈지 함께 고민하며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에스앤마일즈가 선택받는 이유

철강·금속 산업 전문성
산업 특성을 이해한 전문 노하우로
최적의 출장·행사 서비스 제공.

해외 네트워크
전 세계 파트너 네트워크를 통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기업 맞춤 일정 설계
목적과 예산에 맞춘 최적의 일정과
프로그램 설계

24시간 지원 서비스
현지 긴급 지원 및 상담 서비스로
안심 비즈니스 지원

현지 운영 지원
숙련된 현지 운영팀이 행사 전 과정
원활하게 관리

기업 맞춤 인센티브 투어

목적과 예산에 최적화된 맞춤형 프로그램



기업 골프 행사
기업의 목적에 맞는 골프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합니다.



고객사 사은 행사
고객 관계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
로 기획 및 운영을 지원합니다.



해외 워크숍·세미나
항공·호텔·회의·관광까지 원스톱으로
완벽하게 관리합니다.

기획 → 항공 → 호텔 → 현지 운영 → 귀국
ONE STOP 서비스!

2026~27 글로벌 산업 전시회

항공 + 호텔 + 여행자보험 패키지로 편리하게!



01 세계 밸브 산업의 중심
VALVE WORLD EXPO 2026

VALVE WORLD EXPO DÜSSELDORF
뒤셀도르프(Düsseldorf) · 독일
2026. 12. 01(화)~12. 03(목)
Messe Düsseldorf
Exhibition Centre
1인 215만원~
3박 4일 기준 / 조건에 따라 변동



02 금속 용접 / 절단 기술 전시회
URBAN STEEL EXPO 2027

뒤셀도르프(Düsseldorf) · 독일
2027. 04. 20(화)~04. 23(금)
Messe Düsseldorf
Exhibition Centre
1인 350만원~
5박 7일 기준 / 조건에 따라 변동



03 주조 / 열처리 / 야금 / 캐스팅
금속분야 최대 국제 전시회
GMTN 2027

GIFA METEC THERM PROCESS NEWCAST
뒤셀도르프(Düsseldorf) · 독일
2027. 06. 21(월)~06. 25(금)
Messe Düsseldorf
Exhibition Centre
1인 350만원~
5박 7일 기준 / 조건에 따라 변동

상기 요금은 기준 출발일 및 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항공·호텔 예약 상황에 따라 실제 견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S&Miles 기업전문 여행사
기업 출장 · 인센티브 · MICE **S&Miles와 상담하세요!**
맞춤 기획서 · 견적 무료 컨설팅!
02-3487-2800
smkang@snmiles.com
www.snmiles.com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120
에스앤마일즈 여행사

AI·클라우드 18년 현장경험 바탕 전사 AX·정보보호 시스템 진두지휘

CEO와칭

김완종 SK AX 사장

김완종 SK AX 사장이 SK그룹의 인공지능 전환(AX)과 보안 전략을 이끄는 중책을 맡아 SK AX의 최전선을 진두지휘하게 됐다. 지난 10월 사장단 인사에서 유임된 데 이어 연말부터는 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 AX정보혁신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면서다.



김완종 SK AX 사장이 지난 6월 열린 '이매진 AX 2026'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다. /SK AX

◆ 18년 사내 AI·클라우드 현장 누빈 실전형 전문가

김완종 SK AX 사장은 18년 동안 AI·클라우드 현장 경험을 두루 습득한 실무형 경영자로 평가 받는다. 2008년 SK C&C 전략사업본부를 거쳐 2016년 A&I팀장을 맡고 2017년 디지털전환(DT)추진본부장을 역임했다.

2020년부터는 클라우드부문장으로 활약하며 SK그룹 내 IT 인프라와 주요 산업의 클라우드 전환을 이끌었다. 이후 2023년 최고고객책임자(CCO)에서 지난해 10월 정기 임원 인사를 통해 사장으로 승진했다.

김 사장은 그 동안 사내에서 실무진과 낮은 자세로 소통하는 모습으로 주목 받았다. 클라우드부문장을 맡던 2021년 당시 김 사장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문과 출신임에도 직접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아마존웹서비스(AWS) 클라우드 기초 자격증을 취득했다. 같은 시기 전사적으로 클라우드 인증 캠페인과 대대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한 것도 이같은 활동의 배경이 됐다.

◆ SK AX 고강도 쇄신 주역…"새 항로 개척 못하면 '서든 데스' 맞을 것" 각오

김완종 사장은 지난 10월 사장단 인사에서 유임되며 내년에도 SK AX를 이끌게 됐다. 지난해 SK C&C에서 SK AX로 사명 변경 이후 사실상 처음 치뤄진 인사 평가를 무사히 통과한 것이다.

그는 취임 이후 기존 조직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AI 중심의 사업 구조로 빠르게 전환했다. 가장 큰 변화는 최고경영자(CEO) 직속의 최고AI혁신책임자(CAIO)를 신설한 점이다.

CAIO 신설 등 조직 체계 '손질'
CIO·R&D AI 서비스 조직 통합
신뢰회복 중심 경영… '보안' 최우선
AX정보혁신위원장으로 영역 확대

특히 SK AX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CAIO에 기존 IT 인프라 운영을 수행하던 CIO 조직과 연구개발(R&D) 영역의 AI 서비스 조직을 통합했다. 김 사장은 이를 부문급으로 격상해 권한을 확대하고, 전사 AI 전략의 수립부터 실행까지 직접 챙기고 있다.

또한 보안 거버넌스를 AX의 뼈대로 삼는다. 이는 지난해 SK텔레콤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 이후로 그룹사의 신뢰 회복 중심의 경영 기조가 배경이다. SK그룹은 당시 최태원 SK 회장 주도 아래 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를 출범할 정도로 보안을 그룹 내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이같은 상황에서 김 사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안전·보건·환경(SHE), 사이버보안, 컴플라이언스를 화두로 내세워 각 구성원들에게 보안 의식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 사장은 "사이버보안과 컴플라이언스가 흔들리면 AI 혁신은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편 "AI로 새 항로를 개척하지 못하면 서든 데스(돌연사)를 맞이할 수 있다"며 AX를 기업의 생존 문제로 규정하기도 했다.

◆ SK그룹 AX·보안 전략 사령탑…해킹 난제 해결할까

김 사장은 올해 연말부터 SK수펙스추구위원회 산하의 AX정보혁신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게 된다. 전신인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가 보안에 집중했다면, 새 위원회는 AX까지 영역을 확대한 조직이다.

이에 따라 김 사장은 그룹의 'AI 컴퍼니' 전략의 양대 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다. 앞으로 AX정보혁신위원회를 통해 전 계열사의 인공지능 전환과 그룹 전반의 정보 보호 시스템을 직접 실행하는 중책을 수행하게 된다. 거시적인 AI 전략과 투자 방향을 설정하는 'AI 위원회'의 수장은 유영상 전 SK텔레콤 사장이다.

다만, 보안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난제가 김 사장 앞에 놓여 있다. 특히 SK AX는 데이터 유출이 민감한 금융 산업에도 AI 에이전트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어 보안 솔루션에 대한 고도화가 시급하다. 최근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 내부 통제가 엄격한 금융권 시스템을 연쇄적으로 해킹하는 사례가 나타나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AI 도입과 함께 해킹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안 수준을 끌어올리는 실전형 리더십이 요구된다.

김 사장의 취임 이후 성적표는 조만간 SK주식회사 3분기 실적을 통해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실적은 수익성 개선과 함께 선방했다는 평가다. SK AX의 2026년 상반기 매출액은 1조 2717억, 영업이익 92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각각 3.1%, 17.4% 증가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LG U+, AI 토큰 최적화로 B2B 시장 공략

반복 작업 따른 전체 운영 비용 절감
모델 경량화·답변 생성 속도 강화



LG유플러스가 내년부터 AI 토큰 최적화 기술을 앞세워 기업 간 거래(B2B) 시장 공략에 나선다. AI 모델 선택부터 업무 수행까지 전 과정의 비용을 효율적으로 낮춰 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 투자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15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자사의 AI 인프라와 토큰 최적화 기술의 수익화가 목표다. AI 모델 단가보다 반복 작업에 따른 전체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업무를 경제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

이상엽 LG유플러스 최고기술책임자(CTO·사진)는 "모델 단가가 아무리 저렴해도 AI 에이전트가 확산할수록 불필요한 검색과 분석을 반복하면 전체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설명했다.

먼저 LG유플러스는 토큰 효율화에 대한 기술적인 완성도를 입증했다. 자체 기술검증 결과, 토큰 소모가 가장 심한 코딩 영역에서 자체 AI 모델의 운영 비용을 약 90% 절감됐다. AI 모델을 결정하는 모델 라우팅을 통해 일반적인 질문 처리 비용을 25% 이상, 코딩 에이전트의 경우 30% 이상 낮췄다.

또한 AI 모델 크기를 경량화하고 답변의 생성 속도를 높이는 기술에서도 성과를 보였다. 자체 온디바이스 AI 모델 크기를 기존 2.4~3GB에서 800MB까지 줄였다. 이는 약 3분의 1 수준이다.

최근 소형언어모델이 답변을 빠르게 생성하고 대형언어모델이 이를 검증하는 기술까지 고도화했다. 이는 토큰 생성 속도를 2배 이상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해당 연구 성과는 글로벌 AI 학술대회 '뉴립스' 등재 논문으로 채택됐다.

비용 효율화를 위해 고가의 AI 칩에 종속되지 않는 '칩 믹스' 전략도 추진한다. 국산 AI 반도체 기업 퓨리오사AI와 2년 넘게 협력 중으로 신경망처리장치(NPU)를 검증 중이다. 대규모 연산이 필요한 작업과 메모리 대역폭이 중요한 작업을 나눠 각 반도체에서 분산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인프라 활용의 원가를 낮출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이 사업에 대규모 트래픽 운영 노하우를 집약할 계획이다. AI 통화 에이전트 익시오 출시 초기에는 LG AI연구원의 온디바이스 모델과 구글 제미나이를 병행해 활용하다가 현재는 자체 AI 모델과 엑사원 등의 비중을 정교하게 조합해 비용 효율을 끌어올렸다. 또한 사내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AI 코딩 도구에도 자체 모델을 활용하며 비용 절감을 위한 최적의 공식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올해 연말 카카오와 전 국민 AI 활용을 협력하는 '모두의 AI' 사업에서도 이같은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조민선 기자

신작 전시 넘어 국제 게임 비즈니스 행사로

오는 19일 '지스타 2026' 개막
지스타 글로벌 게임 쇼케이스 마련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 2026'(사진)이 글로벌 게임사 참여 확대와 인공지능(AI), 인디게임, 투자 프로그램 강화 등을 앞세워 종합 게임산업 플랫폼으로의 변화를 시도한다. 신작 공개 중심의 전시에서 벗어나 글로벌 개발사와 투자자, 콘텐츠 창작자까지 연결하는 국제 게임 비즈니스 행사로 외연을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1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지스타 2026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올해는 크래프톤과 웹젠을 비롯해 코에이 테크모, 세가, 넷이즈게임즈, CD 프로젝트 레드 등 국내외 주요 게임사가 참가한다. 특히 AI 기업 뤼튼의 캐릭터·스토리 플랫폼 '크랙'이 메인 스폰서로 참여하면서 게임과 AI 콘텐츠의 융합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올해 지스타의 가장 큰 변화는 제2전시장에 처음 마련되는 '지스타 글로벌 게임 쇼케이스'다. 해외 주요 게임사가 신작과 대표 지식재산권(IP)을 선보이며 글로벌 콘텐츠 전시 기능을 강화한다.

코에이 테크모는 '인왕 3'와 '와룡 2: 윙스 오브 엠버'를 출품하고, 세가는 '토탈워: 워해머 40,000'을 국내 최초로 공개한다. 넷이즈게임즈는 '원스 휴먼'과 '연운'을, CD 프로젝트 레드는 '더 위쳐 3: 와일드 헌트'와 '사이버펑크 2077'을 선보인다.

국내 게임사들도 신작 경쟁에 나선다. 10년 연속 참가하는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와 함께 신작 4종을 공개한다. 동양 다크 판타지 액션 RPG '타래: 언바운드'의 신규 클래스 '투귀'를 세계 최초로 시연하며, '에이지 트위스터', '왈츠앤 잼', '템빨용사'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소개한다.

웹젠은 100부스 규모로 참가해 웹툰 원작의 전략 RPG '디펜스 게임의 폭군이 되었다: LAST STAGE'를 일반 관람객에게 처음 공개한다. 신작 MMORPG '뮤 테오스'의 세계관을 담은 티저 영상도 선보인다. 이 밖에 '테르비스', 'R2 ORIGIN', '메틴2', '샷온라인' 등 기존 IP 기반 작품도 출품한다.

인디게임 전시는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된다. '지스타 인디 쇼케이스 2.0: GALAXY'는 250부스 규모로 운영되며 국내외 100여개 개발사가 참여한다. 글로벌 퍼블리셔 디볼버 디지털과 유니티 등이 함께하며 AI 게임잼과 해외 개발사 작품 전시도 진행된다.

비즈니스 기능 역시 한층 강화된다. 지스타 조직위원회는 BTB관 네트워크 라운지를 확대하고 '지스타 인베스트먼트 커넥트'를 신설해 국내외 투자사와 퍼블리셔, 중소·인디 개발사 간 협력을 지원한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오버워치 챔피언스 시리즈' 아시아 파이널 등 e스포츠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최빛나 기자 vitna@

KT, 인천 남동산단에 '세이프메이트' 설치

〈AI 기반 화재안전 서비스〉

LDT와 협력… 20곳에 105대 구축
불꽃, 연기, 온도변화 등 감지하고
화재 가능성 판단해 KT 관제센터 전달

KT는 AI 기반 화재안전 서비스 '세이프메이트'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 구축했다고 15일 밝혔다.

세이프메이트는 화재 발생 시 불꽃과 연기, 온도 변화 등 다양한 화재 징후를 감지하고 KT 관제서비스와 연계해 상황 확인부터 현장 대응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가 추진하는 '2026년 남동산단 AIoT 화재감지기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입주기업 20개사에 세이프메이트 화재감지기 105대를 구축했다. 이번 사업은 화재감지 기술 전문기업 LDT와 협력했다. KT는 세이프메이트 상품과 통신·관제·플랫폼을 총괄하고, LDT는 화재감지 단말의 연구·고도화와 현장 시스템을 담당한다. 양사는 그간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전통시장, 공공시설 등에서 세이프메이트 사업을 함께 추진하며 현장 운영 경험을 축적해왔다.

화재감지 단말은 불꽃과 연기, 일정 수준 이상의 고온이나 급격한 온도 상승 등 여러 화재 징후를 복합적으로 감지한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 축적한 수만 건의 감지 이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이상신호의 패턴을 분석해 실제 화재 가능성을 판단하고 KT 관제센터에 전달한다.

KT 관제센터는 전달받은 정보를 확인해 현장 관계자에게 전화와 문자로 상황을 알리고 119에 자동 신고하는 등 후속 대응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야간이나 새벽 등 상주 인력이 적은 시간에도 화재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KT는 세이프메이트에 AI 기반 아크감지 기능을 추가해 화재 징후 감지와 대응을 넘어 예방 영역까지 안전관리 기능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아크는 전기설비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전기적 이상현상으로, AI가 비정상적인 아크 신호를 감지·분석해 이상징후를 조기에 파악한다. 산업현장의 전기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화재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

/조민선 기자

반도체 다음은 누구… 2차전지·바이오·자동차 '바통 경쟁'

증권가가 꼽은 내년 유망주는
코스피 목표치 최고 1만500p 제시
LG엔솔 vs 삼성전기… 시총 3위 대결

#.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해서 주식 한 친구가 '따블(더블)' 번 것 보고 타이밍만 노리고 있는 '예비 개미' 주부 이모(40)씨, 환율 더 떨어지면 달러 좀 바꿔놓으려는 사업가 김모(72)씨, 이제는 내 집 살 기회를 영영 놓쳐버린 건지 고민이 많은 회사원 유모(35)씨….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와 친환경 에너지 정책 변화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국내 증시의 차기 주도 업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6년 하반기 금융 및 자본 시장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다는 이유로 똑같은 주식이 저평가 받는 것은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매우 불합리한 비정상"이라며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지만, 코스피는 올해 6월 '9천피'(지수 9000)를 찍은후 지난 13일 5290선까지 밀려났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우려와 젠슨 황 스캔들 등 각종 악재가 부각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날개 없는 추락을 잇고 있다.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등 글로벌 각국 중앙은행은 긴축통화정책을 펴고 있다.

투자 타이밍을 놓친 사람도, 일단 유동성 장세에 올라타긴 했는데 언제 어떻게 내릴지 고민인 사람도 앞으로 펼쳐질 상황이 궁금하기만 하다. 내년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까. 국내 증권사들에게 내년 유망 투자처를 물었다. 전문가들은 IT·반도체, 자동차, 제약·바이오 관련주로 돈이 몰릴 것으로 봤다.

◆"그래도 주식… 유동성에 올라타라"

국내 증시 전문가들은 반도체가 2027년 증시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한다.

15일 신영증권에 따르면 2027년 코스피 지수 이익의 77%는 반도체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으로만 보더라도 코스피 영업이익 비중은 2024년 23%에서 2025년 30%, 2026년 상반기 57%까지 높아졌다.

다만 2027년 하반기 국내 증시는 전분기 대비 이익 증가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속도 조절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반도체의 가파른 증익 흐름을 이어받아 이익 공백을 방어할 수 있는 후속 주도 업종의 체력 검증이 지수 방향성을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증권사 김효진 연구원은 "주가의 쏠림은 반도체 급락으로 풀린 것처럼 보이지만 지수 이익의 4분의 3이 반도체에서 나오는 구조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주도주 이익이 정체돼 나타나는 순환매가 지수를 올리려면 후속 업종의 이익이 직전 주도주의 공백을 메울 수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시가총액 3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도 예상된다.

하나증권은 2027년 상반기에는 2차전지와 IT 하드웨어, 하반기에는 제약·바이오와 자동차 업종의 이익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업종별 순이익 증가율은 2027년 상반기 기준 IT하드웨어가 140.5%로 성장을 선도하고, 2차전지는 하반기 193.5%의 증익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하반기에는 제약·바이오와 자동차가 각각 17.8%, 13.4%의 순이익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상반기에는 이익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LG에너지솔루션과 높은 이익 증가율이 예상되는 삼성전기 간의 시총 3위 경쟁이 치열할 수 있다"며 "하반기에는 장기간 주가가 부진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기자본이익률(ROE)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을 보유한 현대차가 시총 3위 자리를 두고 각축을 벌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비반도체 업종이 반도체의 주도권을 단기간에 대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나증권은 반도체의 이익 개선·확장 사이클을 평균 8.1개월, 비반도체를 5.3개월로 분석했다. 비반도체 업종의 이익 성장률이 높아지더라도 개선 흐름이 얼마나 오래 이어지는지가 관건이라는 의미다.

'블루웨이브(민주당 압승)' 현실화에 따른 정책 환경 변화도 변수다. 민주당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 기조가 강화되면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사업과 현대차의 미국 전기차 사업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존재한다. 다만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풍력·태양광은 2028년부터 48E 세액공제가 사실상 종료되며, 의회가 정권을 잡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감안하면 세액공제의 즉각적인 복원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짚었다.

자동차 관세 역시 의회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에 근거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확보하더라도 관세 정책을 단기간에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블루웨이브 우려털고 코스피 1만 갈까

수익 실현할 타이밍을 고민하는 투자자도 많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2027년 코스피 연말 목표치를 9000포인트로 제시한다"며 "연간 지수 밴드는 6000~1만500포인트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반기에는 6000~8000포인트, 하반기에는 7000~1만500포인트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내년 코스피 목표치를 8300으로 제시했다. 이 증권사 김대준 연구원은 내년 위험 요인으로 프랑스의 재정 불안, 중동발 유가 상승, AI 크레딧 리스크, 엔 캐리 청산, 하이퍼 스케일러의 자본 지출(CAPEX) 둔화, 자산간 상관성 변화 등을 꼽았다. 그는 "증시는 변동성 국면에 재진입할 수 있다"며 "관련 내용의 모니터링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키움증권은 내년 예상 등락 범위를 5100~8100으로, 신한투자증권은 5000~8000으로 제시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퇴직연금 전환 15만명… 증시 하락장에 '울상'

올 6~7월 DC형 전환 가입자 181%↑
원리금비보장 상품 평균 수익률 35%p↓

#.12년 차 직장인 박모(40)씨는 지난 6월 퇴직연금을 확정급여(DB)형에서 확정기여(DC)형으로 바꿨다. 박씨는 12일 "당시 DC형으로 바꾼 분들이 수익률 자랑을 많이 하고, 100% 수익률을 낸 사람도 있다는 소문에 너도나도 바꾸는 분위기였다"며 "따라 바꿨는데 지금 수익률이 -30%까지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익이 나면 새 집을 사는데 보탤 생각이었는데 이젠 꿈도 못 꾸는 실정이다. 그냥 DB형으로 둘 걸 후회한다"고 토로했다. 퇴직연금을 직접 굴리겠다며 DC형으로 옮긴 직장인들이 증시 급락으로 '멘붕'(멘탈 붕괴)에 빠졌다. DB형은 퇴직 전 근로자의 평균 임금과 근속 기간에 따라 정해지고, 적립금은 회사가 운용한다. DC형은 회사가 납입한 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고, 그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진다.


올해 3분기 퇴직연금사업자 39곳의 DC형 원리금비보장 상품 수익률은 평균 19.97%로 2분기(55.47%)보다 35.5%포인트 떨어졌다. /ChatGPT로 생성한 관련 이미지

15일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 공시를 분석한 결과, 올 3분기 퇴직연금사업자 39곳의 DC형 원리금비보장 상품 수익률은 평균 19.97%로 2분기(55.47%)보다 35.5%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DB형 원리금비보장 수익률은 22%에서 8.98%로 13.02%포인트 낮아지긴 했지만, DC형보다는 낙폭이 덜했다.

개인이 운용하는 퇴직연금 수익률이 이렇게까지 떨어진 건 코스피와 반도체 주가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집중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계좌 내 보유량 상위 ETF를 보면, 1위는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다. 2·3위는 각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코스피200지수를 추종한다. 상위 10개 중 3개가 반도체 관련 ETF였다.

걱정스러운 점은 코스피가 고점을 찍은 지난 6월 이후 DC형으로 옮긴 가입자는 15만 명에 육박한다는 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7월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한 가입자는 14만9710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1.2% 늘었다. 코스피는 12일 5342.73에 마감해 6월 22일 종가 고점(9114.55)보다 41.38% 떨어졌다.

전환이 몰린 시기는 코스피 고점과 겹친다. 코스피는 6월 22일 9114.55에 마감해 종가 기준 고점을 찍은 뒤 내림세로 돌아섰다. 13일 종가는 5290.53으로, 고점보다 41.96% 낮다.

김진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금투자의 핵심은 단기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위험자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투자 기간과 위험 감내 수준에 맞춰 체계적으로 배분하고 이를 지속해서 관리하는 데 있다"며 "주도주의 성과를 따라가기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자산배분 체계 안에서 ETF를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퇴직연금 적립금은 6년 만에 감소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을 보면 올해 3분기 말 퇴직연금 운용사 43곳의 적립금은 총 542조1214억원으로, 지난 6월 말 553조8779억원보다 11조7565억원(-2.1%) 감소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9천피 때 산 ELS, 만기 다가오자 '속앓이'

증시 급락에 원금 손실 공포

#.회사원 김광중씨(가명)는 지난 6월 코스피200 지수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 1억원을 투자했다. 1년 이내 만기까지 기초자산 가격이 85%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 원금과 이자를 받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지난 6월 9000선을 웃돌던 코스피는 지난 13일 5290선까지 밀려났다. 김씨는 기초자산이 추락하면서 조기 상환 조건에 실패해 자금이 묶인 데다 만기에 '손실 폭탄'을 안게 될까 봐 걱정이 태산이다.

코스피 지수와 반도체 투톱 주가가 급락하면서 이와 연동한 ELS에 돈을 넣은 투자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락하자 '9천피'(코스피 9000)를 웃돌던 코스피가 최근 큰 폭으로 하락한 탓이다. 지수가 떨어지면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의 조기 상환을 하지 못해 자금이 묶이거나 만기 때 원금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이 커진다.

1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간 발행된 만기 1년 이하 ELS는 DB해피플러스2282(공모·지난 9월 만기)를 제외하면 총 94개, 발행금액은 1802억원에 달한다.

올해 1~6월 발행된 상위 10개사(발행액 기준)의 전체 ELS 발행 규모 12조여원(공모·사모 포함)의 약 1.5% 수준이다.

이 중 6월 발행된 만기 1년 이하 ELS가 문제가 되는 것은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인 9000선 안팎에서 발행된 이후 증시가 급락한 데다 만기까지 임박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2일 9114.55(종가)까지 치솟았던 코스피는 지난 13일 5290.53에 거래를 마쳤다. 하락폭은 42%로, 지난 13일 종가는 고점의 58%에 불과하다.

지난 6월 발행된 1년 이하 94개 ELS 중 테슬라, 마이크론 등 해외자산을 기초로 발행된 ELS를 제외하고 국내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상품은 76개, 총 발행금액은 1786억원이다.

이들 76개 ELS는 모두 코스피200(48개), 삼성전자(38개), SK하이닉스(42개)를 기초자산(중복 포함)으로 한다.

당장 12월에는 12개 종목 197억원 규모의 만기가 예정돼 있고, 내년 1월부터 7월 초까지는 64개 1539억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지수가 꾸준히 하락해 조기 상환에 실패하면서 투자금도 발이 묶였다. ELS는 정기적으로 기초자산 가격을 평가해 조건을 충족한 경우 조기 상환되지만, 조건에 미달하면 상환이 미뤄진다. SK하이닉스와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NH투자증권24866(공모)은 지난 9월 기초자산 평가가격이 기준가의 85%를 밑돌면서 조기 상환되지 못했다. 여기에 지난 13일 기준 SK하이닉스는 122만4000원, 코스피200은 824.78로, 기준가의 45.7%와 60.3%에 그치고 있다.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삼성증권31165(사모·연 15.2%)도 내달 24일까지 기초자산 지수가 684.81 미만으로 하락하지 않으면 조기 상환되지만, 그렇지 않고 낙인선(기준가 35%)인 479.36 미만으로 떨어지면 원금을 잃을 수 있다. /김아영 기자 aykim@

수도권매립지관리公, 몽골에 매립가스 포집·처리 기술 전파

튀르키예 'COP31' 부대행사 참석
몽골 온실감스 감축 사업 현황 공유
자원순환 전문기관 역할 강화 의지
인천매립지서 주한 가나 대사 면담도



11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국제감축 부대행사.


11일 최고조 주한 가나 대사가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찾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개도국 대상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자원순환 전문기관의 기능을 국제사회에서도 발휘하는 중이다. 국내에서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협력국의 탄소 감축 및 환경 개선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부대행사에 참석해, '몽골 NEDS 매립장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대통령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국내외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해 국제감축사업 추진 사례 및 협력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공사는 발표에서 수도권매립지 운영을 통해 축적한 매립가스 포집·처리 기술을 몽골 현지에 적용하는 사업 소개에 중점을 뒀다. 또 현지 인허가와 부지확보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경험을 공유했다.

몽골 매립장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울란바토르시 매립장에서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메탄가스를 포집·소각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지원으로 가스포집정 76개와 소각설비 3기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향후 10년간 약 50만 톤(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악취와 화재 위험을 줄이고 매립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공사는 전망했다.

공사는 몽골 정부 및 울란바토르시와 협력해 지난해 부지사용 승인을 받고 협력협정을 체결했다. 이후 올해 6월 실시설계 심의를 통과해 현지 인허가 절차를 완료했고,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강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몽골 사업은 공사가 현장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국의 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이라며 "이처럼 공사의 전문성을 살려 해외사업을 확대하고, 자원순환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2023년 폐기물 분야 국제감축 전담기관으로 지정됐다. 현재 10개국 17곳의 해외 매립지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컨설팅과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같은 날 국내에서는 가나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고조 주한 가나 대사와 한만희 해외건설협회 회장 등이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찾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방문단은 조강희 공사 사장과 면담하고 가나의 폐기물 처리 현황과 매립가스 활용사업 등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공사는 현재 가나 아디파매립장의 매립가스(LFG) 소각발전사업 본타당성조사와 오티매립장의 매립가스 소각발전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지 사업 여건과 온실가스 감축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동시에 향후 국제감축사업으로의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방문단은 면담에 이어 제3 매립장과 50MW 매립가스 발전시설 등을 둘러봤다, 공사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경험과 매립가스 포집·활용 기술을 살펴보고, 매립이 종료된 부지를 골프장으로 조성한 드림파크CC도 방문했다. 매립지의 사후관리와 친환경적 공간 활용 사례에 대한 견학이다.

공사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가나 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수도권매립지 운영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해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추진 기반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조강희 사장은 "수도권매립지 운영을 통해 축적한 폐기물 처리·자원화 기술은 해외에서도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공사의 기술과 전문성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한식진흥원, 유럽서 릴레이 '한식 외교'

오는 20일 '특별한식콘서트' 열어
이탈리아 수도원 초청, 식문화 교류
앞서 포르투갈 농업·해양부 장관 방문


이달 하순 한국을 찾는 이탈리아 성 안나 수도원의 미리암 다고스티노 수녀와 데보라 키날리아 수녀. /한식진흥원

한식진흥원이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전통 식문화 전파에 나섰다. 이달 하순 주한이탈리아문화원과 공동으로 '한식콘서트' 행사를 개최한다. 앞서 지난주에는 포르투갈의 농업해양부 장관과 만나 양국 간 음식문화교류 및 한식의 국제 확산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식진흥원은 오는 20일 서울 종로구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 '11월 특별한식콘서트'를 연다고 밝혔다. 행사는 주한이탈리아문화원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된다.

이탈리아 봉쇄수도원인 성 안나 수도원의 미리암 다고스티노 수녀와 데보라 키날리아 수녀를 초청한다. '풍성할 때 담아두는 지혜-이탈리아 수도원의 저장 음식'을 주제로, 수도원에서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식재료의 생산과 보관 및 저장 문화를 살펴볼 예정이다.

이탈리아 수도원은 직접 재배하고 생산한 식재료를 활용해, 다양한 저장 방식을 통해 자연의 풍요로움을 오래 간직하는 전통을 이어 오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두 수녀가 경험한 일상을 바탕으로 식재료를 생산하고 보관하는 과정을 비롯해 계절의 재료를 저장 음식으로 만드는 방법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식재료가 풍성한 시기, 이를 갈무리해 다음 계절까지 활용하는 수도원의 지혜를 엿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단순한 음식 보존을 넘어 자연의 순환과 절제, 지속 가능한 식생활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식진흥원의 안일국 팀장은 "이번 콘서트를 통해 이탈리아 수도원의 고유한 식문화와 음식 저장의 전통을 직접 들으며,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도 이어져 온 음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 신청은 한식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식진흥원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식콘서트는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 매월 다양한 주제로 열리는 인문학 프로그램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 한식진흥원이 주관하고 있다.

앞서 이달 11일에는 포르투갈의 조세 마뉴엘 페르난데스 농업·해양부 장관이 한식진흥원을 찾았다. 이규민 한식진흥원 이사장은 페르난데스 장관과 면담하고 '한식의 글로벌 확산 및 양국 음식문화교류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이사장은 전 세계적 K-푸드 인기와 한식진흥원의 주요 글로벌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또 상대국에 한국의 전통 식문화를 소개하는 전시·체험 프로그램 등을 안내했다.

양측은 한·포르투갈 수교 65주년을 맞아, 양국의 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IOTEC, 유네스코 교육시설 인가 취득

〈韓·인니 통합 해양수산기술교육센터〉

자카르타서 현판식 열어
유네스코 IOC가 참가자 경비를 지원하

해양수산부가 자체 지원으로 구축한 '한국·인니 통합 해양수산기술교육센터'(KIOTEC)가 출범한다. 이 센터는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의 지역훈련센터(RTC)로 최종 승인을 받아 냈다.

해수부는 이 센터가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현판식을 열고 교육 실시 등 운영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KIOTEC은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통해 인도네시아 해양수산인력개발청 내에 설립된 거점 교육시설이다. 지난 8월 유네스코 IOC로부터 5년간 운영되는 공식 RTC로 최종 승인받았다. 우리나라가 해양과학 분야에서 아태 지역의 전문 인력 양성과 국제 협력을 주도할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고 해수부가 구축한 교육시설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우리 정부와 인도네시아 간 양자 협력이 국제기구 협력으로 확장된 모범 사례로 평가 받는다.

첫 교육은 16~20일 기간 '소도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안 수질 평가 및 환경 모니터링'을 주제로 열린다. 국제 공모로 선발된 청년 해양 인력 20명이 전용 훈련선을 활용해 해상 관측과 데이터 분석 실습에 참여하는 일정이다.

서정호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한국-인도네시아 양국이 함께 세운 교육센터가 유네스코 공식 훈련센터로 승인받아 아태 지역 해양 역량 강화의 핵심 거점으로 발돋움했다"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국제기구와 협력해 국제적 기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韓 제품, 中 수입시장서 6개월 연속 선두

中, 韓 제품 2362억弗 수입… 75%↑
반도체 수출이 '견인'… 220% 급증

한국산 제품이 중국 수입시장에서 6개월 연속으로 선두에 자리했다.

15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중국 수입시장에서 1위에 올랐다. 앞서 1~3월 기간에는 대만에 이어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중국은 올해 1~9월 한국으로부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5.1% 늘어난 2362억 달러어치의 상품을 수입했다. 현지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9.8%로 가장 높았다.

1~9월 누적 기준 한국이 중국의 최대 수입국 자리를 되찾은 것은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반도체가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한국의 올해 1~9월 반도체 수출액은 3403억 달러 가운데 중국으로 향한 물량은 1054억 달러에 달했다. 대중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0%가량 급증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달 1~25일 대중 반도체 수출액도 148억 달러로 331.0% 늘었다. 9개월째 세 자릿수 증가율이다.

아울러 컴퓨터(264%)와 일반기계(26%), 농수산식품(21%), 화장품(23%) 등의 수출도 증가했다. 그 결과 지난달 대중 전체 수출액은 269억8000만 달러로 133.6% 늘었다.

미국 수입시장에서도 한국산 점유율이 올랐다. 미국의 올해 1~9월 한국산 제품 수입액은 1292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5.2% 증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주막'으로 日 현지 입맛 사로잡다

aT, 시부야서 '막걸리의 날' 기념
막걸리 19종, 곁들임 안주 소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일본 현지 인플루언서 대상의 막걸리 홍보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행사는 '막걸리의 날'(10월29일)을 기념해 도쿄 시부야에서 열렸다.

15일 aT에 따르면 이 행사는 막걸리의 일본 내 소비 확대를 위해 추진됐다. aT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K-주막' 콘셉트로 행사를 마련했다.

특히 현지 MZ세대 인플루언서들에게 전통 주막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간을 선보였다. 한식 요리연구가 김연정 씨도 합류해, 한국 전통 막걸리의 역사를 비롯해 세계로 뻗는 현대 막걸리의 매력을 알렸다.

행사장에서는 일본 현지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국 막걸리 19종을 전시하고 시음 기회도 제공했다. 막걸리와 궁합이 맞는 안주를 곁들인 '짝꿍 마케팅'도 진행했다.

공사 관계자는 "한국산 애호박과 파프리카, 깻잎, 고추 등을 활용한 5가지 종류의 모듬전을 옛 한국의 주막처럼 막걸리와 함께 제공해 참가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우수조달 제품지정 (제 2026120호)

28 AI INNOVATION

All-in-One AI/연계 플랫폼 초월기업

Leading AX Platform

온프레미스 &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1등 기업

LLaMON AX AI플랫폼
- Advanced RAG Graph RAG
- LLM 모델 최적화 및 튜닝 LLM/MLOps
- 에이전트빌더 MCP/A2A
- Document AI
- VLM OCR Voice
- 디지털집현전 AI 민원상담 AI
- AX 복지/예산 복지상담·안내 예산 심의 등

MESIM AX AI연계통합플래폼 우수조달제품
- MCP 게이트웨이
- API 게이트웨이
- ESB 연계통합
- DevOps 개발운영 자동화
- 망간 보안연계
- 모니터링 Observability

KLEVER 디지털트윈 휴먼플랫폼
- 자율주행 교통
- 도시 산단 건설
- 철도 항공 드론
- 디지털휴먼 플랫폼
- 레이더검지 AI영상검지

조달우수제품 AI연계통합제품(MESIM AX)을
수의계약 또는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간편하게 구매가능

METABUILD

본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2 **2사옥**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4
교통자율주행 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08 **대전지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364번길 19, 701호
T 02.598.3327 | **F** 02.598.3329 | **Email** support@metabuild.co.kr **www.metabuild.co.kr**

대구·경북 외국인주민 20만 시대… 지역 인구지형 달라진다

경북 8% 늘어 시도 중 증가율 최고
경산 3258명 늘어 전국 시군구 최다
영양 42.5% 급증 속 일부 시군 감소
유학생·산업인력 등 거주 유형 차이
지역 특성 고려 맞춤형 정착책 과제



대구·경북 외국인주민이 20만명을 돌파하며 지역 인구 구성의 변화를 보여준다. 행정안전부 통계에서 경북은 전국 시·도 중 증가율 1위를 기록했고 경산·경주와 일부 감소 지역의 차이가 뚜렷해 맞춤형 정착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경북의 외국인주민 증가세가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산과 경주가 증가 규모를 이끈 가운데 영양과 봉화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포항과 울진·예천·울릉은 오히려 감소했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5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을 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대구·경북 외국인주민은 20만 2661명이다. 전년 19만279명에서 1만 2382명 늘어 증가율은 6.5%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경북의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경북 거주 외국인주민은 13만9007명으로 1년 전보다 1만282명 늘었고 증가율은 8.0%였다. 전국 17개 시·도 중 증가율 1위이며 증가 인원으로는 경기도 다음으로 많다. 경북 인구에서 외국인주민이 차지하는 비중도 5.4%로 전국 평균 5.1%를 넘어섰다.

대구는 6만3654명으로 전년보다 2100명 증가했다. 증가율은 3.4%였으며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은 2.7%로 경북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경북 22개 시·군 가운데 외국인주민이 가장 많은 곳은 경산으로 2만8005명이 거주했다. 경주가 2만4559명으로 뒤를 이었고 포항 1만3356명과 구미 1만2576명도 1만명을 웃돌았다.

나머지 지역은 칠곡 7828명, 영천 6826명, 김천 6774명, 상주 5212명, 안동 5094명, 성주 3722명, 영주 3442명, 고령 3395명, 문경 2911명, 울진 2689명, 청도 2246명, 영덕 2206명, 의성 2055명, 예천 1699명, 봉화 1658명, 영양 1268명, 청송 1214명, 울릉 272명 순이다.

증가 인원 기준으로는 경산의 상승세가 전국에서 가장 컸다. 경산은 전년 2만4747명에서 3258명 늘어난 2만8005명을 기록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증가 인원 1위에 올랐다. 증가율도 13.2%였다. 경주는 2만2507명에서 2만4559명으로 2052명(9.1%) 늘어 전국 주요 증가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두 지역의 외국인주민 구성은 달랐다. 경산은 전체 2만8005명 중 유학생이 1만3957명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경주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6157명으로 집계됐고 외국국적동포도 4723명에 달했다.

인구 규모와 별개로 외국인주민 비율이 높은 지역은 고령이었다. 고령은 전체 인구의 11.1%가 외국인주민으로 대구·경북 31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경산과 경주가 각각 9.4%였고 성주 9.2%, 영양 8.2%, 칠곡 7.3%, 영천 7.0%, 영덕 6.8%가 뒤를 이었다.

고령의 외국인주민 3395명 중 외국인근로자는 1720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성주도 3722명 가운데 1523명이 외국인근로자로 분류돼 두 지역 모두 산업인력 중심의 거주 특성이 확인됐다.

증가율만 놓고 보면 영양이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가팔랐다. 영양의 외국인주민은 890명에서 1268명으로 378명 증가해 42.5%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봉화 역시 1341명에서 1658명으로 317명 늘어 23.6% 증가했다.

반면 경북의 전반적인 증가 흐름과 달리 포항과 울진·예천·울릉은 감소했다. 포항은 1만3421명에서 1만3356명으로 65명(0.5%) 줄었다. 울진은 2772명에서 2689명으로 83명(3.0%) 감소했고 예천은 1790명에서 1699명으로 91명(5.1%) 줄었다. 울릉도 282명에서 272명으로 10명(3.5%) 감소했다.

대구에서는 달서구와 달성군, 북구에 외국인주민이 집중됐다.

대구에서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중이 가장 큰 곳은 달성군으로 5.2%였다.

대구 안에서도 거주 유형은 지역별로 엇갈렸다. 달서구에는 유학생 5236명이 거주했지만 달성군은 외국인근로자가 3746명으로 유학생 238명보다 훨씬 많았다.

대구·경북 전체 외국인근로자는 경북 3만1535명과 대구 1만338명으로 집계됐다. 유학생은 경북 2만1333명, 대구 1만782명이었다.

/대구=김진곤 기자
jingon@metroseoul.co.kr

경북, 산하기관 청렴도 첫 9점대 진입

23개 기관 평균 9.18점 기록
청렴노력도 상승 속 체감도↓

경북도는 2026년 산하 출자출연·보조기관 23곳의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평균 9.18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1년 평가 도입 이후 처음으로 9점대에 진입했으며, 지난해보다 0.32점, 2021년보다 0.76점 상승했다.

평가 항목 중 청렴노력도는 지난해 8.45점에서 9.09점으로 0.64점 올랐다. 반면 외부체감도는 9.74점에서 9.53점으로 0.21점, 내부체감도는 8.80점에서 8.39점으로 0.41점 하락했다.

등급별로는 2등급 7개, 3등급 9개, 4등급 6개, 5등급 1개 기관으로 1등급은 없었다. 3등급 이상은 전체의 70%를 차지했으며 기관 간 최고·최저 점수 차이는 1.36점으로 줄었다.

2등급 기관은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경북연구원,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경북신용보증재단과 김천의료원이다.

경북도는 도민의 외부체감도, 직원의 내부체감도, 반부패 정책 추진실적을 반영한 청렴노력도를 합산하고 부패사건 감점을 적용해 평가했다.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 평가대상으로 제외됐으며, 지방의료원 3곳은 별도로 평가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당진 장고항, 1954억 투입해 수산거점 조성

국가 거점어항 선정·AI 어업관리 도입

충남 당진 장고항이 해양수산부 주관 '국가 거점어항 조성사업'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며 총 1,954억 원 규모의 대규모 개발에 착수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어업관리와 생산·유통·가공·수출 전 과정을 아우르는 서해안의 핵심 수산경제 허브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충남도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비 1239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95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당진 장고항을 비롯해 전남 진도 서망항, 강원 속초 대포항 등 전국 3곳이 이름을 올렸다. 장고항은 서해 어종 변화 대응에 유리한 입지와 수도권 인접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는 당초 490억 원 규모였던 기획안을 해수부와의 협의 끝에 신규 국비 802억 원을 포함해 1,054억 원 규모의 신규 공모사업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기존 연계사업 900억 원을 더해 총 1954억 원(국비 1239억 원·지방비 650억 원·민간자본 65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은 크게 기반시설 정비와 산업 기반 구축으로 나뉜다.

우선 409억 원이 투입되는 기반시설 정비 사업을 통해 대형선단 유치를 위한 항만 준설(207억 원), 저온유통 콜드체인 허브(57억 원) 등이 들어선다.

/당진(충남)=양대승 기자 zzica@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업종 확대해 2차 분양

19개 필지 공급·이전 기업 우대

고양시가 일산테크노밸리의 기업 유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첨단제조시설용지 19개 필지(총 5만 7,006㎡)에 대한 2차 분양에 나선다.

이번 공급부터는 기존 일부 첨단산업에 한정됐던 입주 대상을 바이오·의료·항공·우주위성·드론·로봇·반도체·전기전자 등 시가 인정하는 첨단기술 업종 전반으로 확대하고 필지별 허용 업종도 다양화했다.

토지 공급은 최고가 경쟁입찰 방식을 유지하되 우선순위를 도입했다. 동일 부지 경합 시 고양시 내 이전·확장 기업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확장하는 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해 외부 기업 유치와 지역 기업 성장을 동시에 도모한다.


일산테크노밸리 조감도.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영덕, 원자력 포럼서 발전 전략 모색

19일 개최·기업 유치 등 성장책 논의

원전 유치가 영덕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어지려면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아우르는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 영덕군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영덕군민회관에서 제3회 원자력 포럼을 개최하고 에너지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경상북도가 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영덕군과 (사)한국과총 경북지역연합회 등 6개 기관·단체가 공동 주관하며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한국수력원자력이 후원한다. 2024년부터 이어진 세 번째 행사로 원전 유치의 경제적 효과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연결할 방안을 다룬다.

주요 과제는 관련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인재 양성, 인구 유입이다. 주거·교육·의료·문화·관광 기반을 함께 확충하고 지역업체의 사업 참여를 확대해야 주민이 체감하는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논의한다.

한병문 한국과총 경북지역연합회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고 박영식 회장이 개회사를 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조주홍 영덕군수, 김현권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박형수 국회의원도 축사할 예정이다.

기조강연은 최성민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겸 KAIST 교수가 맡아 기후위기와 AI 시대 원자력의 역할을 설명한다.

/영덕(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지역 이모저모

경남도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지원

경남도는 진주시·의령군·함안군의 특화 공공임대주택 사업 발굴과 국토교통부 공모 준비를 지원한다. 16일 시군과 발표자료 초안을 공유·검토하고, 20일에는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제안사업 사전검토와 자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경남도는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컨설팅'을 진행해 지역별 주거 수요와 사업 추진 여건을 살폈다. 지난달 사업발굴 전략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택·인구·청년 관련 부서 담당자들과 사업 구상을 검토했다.

/경남=박현철 기자 metrobusan88@

포항시

포항국제불빛축제 19일 개막

'2026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오는 11월 19~21일 열리는 가운데, 경북 포항시가 행사 준비와 안전관리에 본격 돌입했다. 포항시에 따르면 당초 5월 말 예정됐던 올해 축제는 6·3 지방선거 일정으로 11월로 연기됐다. 축제는 19일 송도부두 미디어파사드 점등식과 시민불꽃쇼로 막을 올려, 20일 아시아 DJ 페스티벌과 나이트카니발로 이어진다.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영일대해수욕장에서 프랑스·일본의 국제불꽃쇼와 한국의 그랜드피날레가 밤하늘을 수놓는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평택시

'미래모빌리티 포럼' 개최

평택시와 평택산업진흥원이 오는 19일 오후 3시 평택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2026 평택 미래모빌리티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기술이 움직이고, 도시가 달라지는 시간'을 주제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주요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지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차 산업 전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과 국내 완성차 기업, 자율주행 로봇 전문기업,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미래항공모빌리티(AAM) 등 첨단기술의 발전 방향을 소개한다.

/평택(경기)=김예원 기자 ywon@

영양군

김장철 맞아 영양고추 홍보

김치의 색과 맛을 좌우하는 고춧가루 선택이 본격적인 김장 준비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영양군이 지역 대표 농산물인 영양고추 알리기에 나선다. 군은 산지의 재배 여건과 지리적표시 등록 이력을 앞세워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하고 지역 농가의 판매 확대에도 힘을 보탤 계획이다. 김치의 붉은 색감과 양념의 깊이를 결정하는 고춧가루는 김장 재료 가운데 빼놓기 어렵다. 배추와 무를 준비하는 것만큼 원료의 품질을 살피는 일이 김장 맛을 좌우하는 만큼 영양군은 지역에서 생산한 고춧가루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고 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남녀노소 건강상태별 개인화… 6조 건기식 시장 잡아라”

식품업계, 미래먹거리 확대

오뚜기, ‘하루강황’ 선택 폭 확대
농심, ‘라이필’ 제품 다변화·中 진출
삼양식품, 식물성 단백질·R&D 강화
오리온, 실버·키즈 겨냥 제품 육성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2026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6조1280억원으로 전망된다. 최근 1년 내 건강기능식품 구매경험률은 82.7%로 지난해(81.6%)보다 1.1%포인트 상승하며 최근 3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식품업계가 건기식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낙점하고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건강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 저변이 넓어지는 데다, 정체된 기존 식품사업의 성장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신사업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2026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6조1280억원으로 전망된다. 전년 대비 0.7% 소폭 감소한 수치지만 소비자들의 구매 경험은 오히려 늘었다. 최근 1년 내 건강기능식품 구매경험률은 82.7%로 지난해(81.6%)보다 1.1%포인트 상승하며 최근 3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시장 외형은 다소 주춤했으나 건기식을 찾는 소비자층은 더욱 두터워진 셈이다.

특히 가족 구성원이 함께 제품을 섭취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따라 제품을 고르는 ‘개인 취식’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실제로 20세 이하와 61세 이상 연령층에서도 개인 취식 제품 구매액이 증가했다. 기능성 원료별 구매액에서는 홍삼이 9315억원으로 1위를 지켰고 프로바이오틱스(7626억원)가 뒤를 이었으며, EPA 및 DHA 함유 유지, 마그네슘, 코엔자임Q10 등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이처럼 건기식 소비가 일상적인 건강관리 영역으로 자리 잡으면서 식품기업들의 시장 공략도 한층 가팔라졌다.

오뚜기는 지난 9월 강황을 일상에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건강식 브랜드 ‘하루강황’을 선보였다. 백세강황환과 레몬진저샷, 강황가루 등 3종으로 구성해 섭취 방식과 취향에 따른 선택지를 넓혔다. 앞서 2024년 10월부터 백세강황환 TV 광고를 진행하며 브랜드 인지도를 쌓아온 오뚜기는 앞으로 하루강황을 중심으로 관련 제품군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농심은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라이필’을 필두로 사업 영역을 확장 중이다. 2020년 ‘라이필 더마 콜라겐’으로 시장에 진출한 이후 유산균, 오메가3, 락토페린 등으로 라인업을 넓혔다. 최근에는 기능성 원료를 활용해 체지방 감소, 혈당 조절, 중성지질 감소, 배변 활동 개선 등을 돕는 ‘라이필 비움샷’을 선보였다. 해외 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해 지난 4월 중국 왕라오지약업과 기능식품 상호 도입 협약을 맺고 더마콜라겐 비오틴맥스와 탱탱 젤리스틱의 중국 수출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무대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삼양식품은 식물성 헬스케어 브랜드를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2024년 론칭한 ‘잭앤펄스’의 브랜드명을 지난해 ‘펄스랩’으로 변경하고 식물성 단백질 중심으로 사업 방향을 재정비했다. 건기식과 간편식, 단백질 음료 등으로 제품군을 넓히는 한편 R&D 투자도 대폭 늘렸다. 올해 상반기 연구개발비는 12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8억원)보다 118.9% 급증했으며, 기존 면·스프 등 식품 분야에 집중됐던 연구 범위를 건기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오리온 역시 건강·기능성 식품을 미래 핵심 사업으로 키우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8300억원 규모의 중장기 투자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건강·프리미엄 제품군 확대를 예고한 바 있다. 실버·키즈 대상 건강식품을 출시하고 단백질·저당 중심의 기능성 음료 라인업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상반기 연구개발비는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한 25억원을 기록했으며 기능성 식품과 단백질 음료, 저당제품 제조 기술 등을 주요 연구과제로 삼고 있다.

이처럼 국내 기업들은 건강 관련 브랜드 론칭과 기능성 제품 개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기존 식품사업과의 시너지는 물론, 새로운 수익원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신세계百, 연말 홈파티 겨냥 ‘와인위크’

19일까지 전점서 행사 진행
샴페인·매그넘 와인 물량 확대
사전예약·두 병 구매 할인 혜택

신세계백화점이 오는 19일까지 전점에서 연말 홈파티와 송년 모임 수요를 겨냥해 하반기 최대 와인 행사인 ‘와인위크’를 연다. 이번 행사는 연말을 앞두고 수요가 높아지는 샴페인과 위스키, 대용량 와인인 매그넘을 중심으로 상품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연말에 즐길 와인을 한 달 먼저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과 두 병 구매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

연말을 앞둔 11~12월은 연간 와인 매출의 약 25%가 집중되는 최대 성수기다. 실제 지난해 같은 기간 신세계백화점의 샴페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 신장했으며, 송년 모임과 홈파티에 적합한 대용량 매그넘 와인도 약 20% 늘었다.

이에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와인위크에서 샴페인과 매그넘 와인 물량을 지난해보다 확대하고, 행사장 전면에 별도 공간을 마련했다.

먼저 샴페인은 대중적으로 인기가 높은 하우스 샴페인부터 소규모 생산자가 포도 재배부터 양조까지 직접 맡는 생산자 샴페인, 특정 수확 연도의 포도로 만든 빈티지 샴페인까지 준비했다. 희소성이 높은 프레스티지 샴페인과 대용량 매그넘 상품도 함께 선보인다. 대표 상품으로는 앙드레 끌루에 상파뉴 브뤼 그랑 리저브 샴페인, 니콜라스 피이야트 팔므 도르 로제 2006 샴페인, 찰스 하이직 브륏 리저브 매그넘 1.5L 등이 있다.

위스키 상품도 마련했다. 싱글몰트 위스키 브랜드 맥캘란의 ‘110 프루프’를 국내 최초로 선보이고, 희소성과 소장 가치가 높은 ‘파인 앤 레어(Fine & Rare)’ 라인도 단독으로 운영한다.

와인 두 병을 묶어 할인 판매하는 ‘투 보틀 딜(Two Bottle Deal)’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연말 와인을 미리 준비하는 고객을 위한 사전예약 혜택도 제공한다. 신세계백화점 전점 와인샵에서는 프랑스 보르도와 부르고뉴 지역의 2023·2024 빈티지 와인 등 새롭게 출시되는 상품을 사전예약하면 12월 중 원하는 날짜에 수령할 수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더벤티, 美 진출 앞두고 현지 마케팅

라스베이거스서 팝업 캠페인 진행

커피 프랜차이즈 더벤티가 미국 라스베이거스 매장 개점을 앞두고 현지 소비자와의 접점 확대에 나섰다.

더벤티는 세계 최대 자동차 튜닝 전시회인 ‘SEMA 쇼’ 개최 시기에 맞춰 미국 라스베이거스 매장 오픈 예정 부지에서 리버티워크(Liberty Walk)와 팝업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BEYOND THE PIT STOP’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자동차가 정비를 위해 잠시 멈추는 피트스톱에서 착안했다. 커피를 마시며 휴식하고 방문객들이 교류하는 공간으로 팝업을 구성해 자동차 애호가와 글로벌 방문객의 참여를 유도했다.

행사에서는 아메리카노와 퍼플 라벤더티, 하모니 차이 라떼 등 음료 3종을 무료로 제공했다. 리버티워크와 공동으로 디자인·튜닝한 차량 전시와 주행 시연도 진행했다. SNS 팔로우와 콘텐츠 업로드 등 참여 이벤트를 통해 사은품을 증정하고, 2027년 매장 개점 이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파운딩 피트 코인’도 제공했다.



더벤티 미국 현지 팝업 캠페인 현장 모습.

/신원선 기자 tree6834@

현대백화점

챗GPT서도 AI 쇼핑

상품 추천부터 구매까지 연결

현대백화점의 프리미엄 큐레이션 전문몰 ‘더현대 하이(Hi)’가 카카오톡에 이어 챗GPT(ChatGPT)에서도 AI 쇼핑 서비스를 선보인다. 챗GPT에서 상품을 추천받고 구매까지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대백화점은 오픈AI(OpenAI)의 ‘앱스 인 챗GPT(Apps in ChatGPT)’에 더현대 하이 전용 쇼핑 플러그인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앱스 인 챗GPT는 사용자가 챗GPT 대화창 안에서 외부 서비스를 직접 연결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용 방법은 챗GPT 메뉴에서 플러그인 탭으로 이동한 뒤 더현대 하이를 검색해 추가하면 된다. 더현대 하이를 연동한 뒤 ‘채팅 시작’을 누르면 첫 대화창이 열리며, 최초 설정 후에는 별도의 앱 검색 과정 없이 챗GPT 대화창 옆 ‘더보기(+)’ 버튼으로 바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 /김현 기자

롯데마트·슈퍼, 달리기로 나눔 실천

3000명 참여한 첫 ‘통큰런’ 개최

롯데마트·슈퍼가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상암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나눔 러닝 페스티벌 ‘통큰런’을 열고 참가비 6000만원 전액을 기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3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대형 마트 업계에서 시민 참여형 기부 러닝 페스티벌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부금은 일반 참가자 2000명이 낸 참가비로 마련했다. 이 중 3000만원은 희망친구 기아대책을 통해 겨울철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와 방한용품 지원에 사용된다. 나머지 3000만원은 하남 보바스병원 어린이재활센터에 전달돼 뇌성마비와 발달지연 환아의 전문 재활치료 및 센터 운영에 투입된다. 이날 현장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차우철 롯데마트·슈퍼 대표이사와 최창남 희망친구 기아대책 회장, 강유진 하남 보바스병원장이 참석했다.



14일 서울 마포구 상암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차우철 롯데마트·슈퍼 대표이사(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등 총 3천명의 참여자들이 롯데마트·슈퍼 ‘통큰런’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롯데쇼핑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공동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롯데마트·슈퍼 대표 브랜드 ‘통큰’을 나눔과 상생 분야로 확장하기 위해 기획됐다. /김서현 기자

현대홈쇼핑, AI가 방송·판매까지 ‘척척’

쇼호스트·카메라 없이 방송 제작
제작비 80%↓… 월 1회 이상 편성

현대홈쇼핑이 업계 최초로 방송 전체를 인공지능(AI)으로 구현한 방송을 선보인다. 현대홈쇼핑은 데이터홈쇼핑 채널 ‘현대홈쇼핑 플러스샵’에 이달부터 100% AI 방송인 ‘AI-REAL’을 본격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첫 정규 방송은 오는 16일 오후 3시 20분 ‘제주 하트 골드키위’ 방송이다.

AI-REAL은 사람 쇼호스트나 카메라 촬영 없이 AI가 목소리부터 화면까지 생성하는 방송 시스템이다.

그동안 홈쇼핑 업계에서 일부 장면이나 쇼호스트를 AI로 대체한 경우는 있었지만, 방송 전체를 AI로 구현한 것은 현대홈쇼핑이 처음이다.

현대홈쇼핑은 기존에 영상으로 구현하기 어려웠던 산지 토양 상태나 유통 과정 등을 별도 촬영이나 소품 없이 AI 기술로 구현해 상품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객의 상품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수진 현대홈쇼핑 방송제작담당 사업부장은 “정식 도입을 앞두고 최근 진행한 테스트 방송에서 샘플 준비와 인서트 영상 제작 등에 소요되는 협력사 제반 비용은 기존 대비 80% 이상 절감됐고, 매출은 목표 대비 120%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현대홈쇼핑은 농·축·수산물 중심의 AI 방송 편성을 월 1회 이상으로 정례화하는 한편, 가공식품이나 리빙 등 중소 협력사의 입점 수요가 높은 카테고리로 적용 범위를 점차 넓혀 나갈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약도 취향 따라 골라 먹는다… 제약업계, 제형 차별화 경쟁

폼·겔·액상 등 다양한 제형 시도
휴대성·복용 편의성 등 선호 반영
경쟁력 강화하고 신규 소비자 확보



유한양행 '마그비맥스'



현대약품 '마이녹실'

국내 제약업계가 일반의약품(OTC)의 복용 및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한 다양한 제형을 잇달아 선보이며 소비자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약효라는 기본기뿐만 아니라 휴대성, 섭취 방식, 사용감 등 디테일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형을 세분화하고 브랜드 라인업을 확장하는 추세다.

제형 다변화 전략은 소비자에게 라이프스타일과 선호도에 따른 맞춤형 선택지를 제공하는 동시에, 제약사 입장에서는 검증된 메가 브랜드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신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현대약품의 탈모증 치료제 '마이녹실'은 한국인 임상시험을 통해 확인된 92.9%의 탈모 증상 개선 효과에 더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인 다채로운 제형 라인업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마이녹실은 조밀한 거품 입자로 흘러내림이 적고 사용 후 결정이나 백탁 현상이 남지 않는 '마이녹실폼'을 필두로, 국소 부위에 바르기 쉬운 '마이녹실겔', 두피에 직접 분사하는 스프레이형 '마이녹실액', 경구용 치료제 '마이녹실 에스캡슐'까지 폭넓은 제형을 갖췄다. 현대약품은 지속적인 디지털 광고 캠페인을 통해 각 제형의 특장점을 알리며 소비자 접점을 넓히고 있다.

감기약과 진통제 시장에서도 제형 혁신이 두드러진다.

동아제약의 장수 감기약 브랜드 '판피린'은 이부프로펜을 주성분으로 한 국내 최초의 액상형 스틱 감기약 '판피린타임 이부프로펜' 3종을 출시하며 제형 차별화에 나섰다. 기존 병 타입 액상제인 '판피린큐'에 더해 따뜻한 물에 차처럼 타 마시는 '판피린타임 나이트플루 건조시럽', 물 없이도 털어 넣을 수 있는 파우더형 '판피린타임 산제' 등 제형을 세분화해 복용 환경에 따른 선택권을 넓혔다.

종근당 역시 대표 감기약 브랜드 '모드콜' 시리즈를 통해 제형과 성분 세분화 전략을 적극 펼치고 있다. 액상형 연질캡슐로 체내 흡수율을 높여 빠른 약효를 내는 '모드콜S' 시리즈에 이어, 물 없이 간편하게 짜 먹을 수 있는 스틱형 액상 감기약 '모드콜플루' 라인업을 선보이며 휴대성과 복용 편의성을 한층 강화했다.

영양제 및 피로회복제 분야에서도 물 없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액상·스틱 제형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유한양행의 대표 마그네슘 브랜드 '마그비'는 1일 2캡슐로 고함량 마그네슘을 섭취할 수 있는 연질캡슐 제품 '마그비맥스'와 함께, 유기염 마그네슘(글리세로인산마그네슘 1200mg)을 담아 물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액상 제제 '마그비스피드'를 선보이며 복용 편의성을 높였다.

이 밖에도 동국제약의 정맥순환 개선제 '센시아'나 인사돌 등 기존 정제 위주였던 중장년층 타깃 일반의약품 시장에서도 복용 부담을 줄인 액상 파우치나 츄어블(씹어 먹는) 제형 등 새로운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약효 중심의 단일 제형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바쁜 현대인의 생활 패턴과 개인별 복용 선호도를 반영한 제형 세분화가 필수 생존 전략이 됐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제형 개선과 라인업 확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유한양행, 만성신장병 신약 임상 1상 승인

염증 반응 감소, 섬유화 과정 억제
신장 손상·질환 진행 속도 늦춰

유한양행은 만성신장병 (CKD) 신약으로 개발 중인 YH34180의 임상1상 시험계획(IND)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6일자로 승인받았다고 15일 밝혔다.

YH34180은 경구 투여가 가능한 저분자 화합물로,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고 섬유화의 발생 및 진행을 억제하여 만성신장병 환자의 구조적·기능적 신장 손상을 완화하고 질환의 진행과 관련 합병증의 발생을 지연시키는 것을 목표로 개발 중인 신약후보물질이다.

전임상 효력시험에서 YH34180은 경구 투여로 다양한 마우스 모델에서 유의한 신장 보호 효과를 확인했다. YH34180 투여군에서는 신기능 지표가 개선되고 신장 조직의 섬유화와 손상이 감소하였다. 또한 임상에서 승인된 만성신장병 치료제와의 병용 시 추가적인 개선 효과도 확인했다.

이번에 승인받은 연구는 YH34180을 사람에게 처음 투여하는(First-in-human) 임상 1상 시험으로, 건강한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YH34180의 안전성, 내약성, 약동학(PK) 및 약력학(PD) 특성을 평가하고, 기존 표준치료(SOC)와의 병용 투여 시 안전성과 약동학(PK) 특성을 함께 평가할 예정이다.

만성 신장병 치료제로는 레닌-안지오텐신계 (RAS) 차단제, SGLT2 억제제, 무기질코르티코이드 수용체 길항체 (MRA), GLP-1 수용체 작용제 (GLP-1 receptor agonists) 가 있다. 하지만 잔여 염증 및 섬유화 과정이 여전히 미충족 수요로 남아있다. YH34180은 염증 및 섬유화 과정에 관여하는 경로를 조절함으로써 만성신장병의 미충족 의료 수요를 해결할 새로운 치료적 접근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열홍 유한양행 R&D 총괄 사장은 "유한양행 연구소에서 기존 만성신장병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후보물질을 도출하였으며, 수년간 전임상 개발에 집중한 결과 성공적으로 임상 개발 단계에 진입하게 됐다"며 "YH34180은 만성신장병진행의 주요 병태생리인 염증 및 섬유화 경로를 조절하는 기전으로 개발되었으며, 항염증 및 항섬유화 효과를 통해 신장 손상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곧 시험대상자 모집을 개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동아에스티 비만 신약, 요산 감소 효과 확인

체중 13.5%·간 지방 68% ↓

동아에스티의 미국 관계사 메타비아는 개발 중인 신약 후보물질 DA-1726이 기존에 확인된 체중 및 간 지방 감소 효과에 이어 혈중 요산 수치에서도 유의한 감소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DA-1726 임상 1상 Part 3B의 추가 중간분석 결과에 따르면, DA-1726을 16주간 투여한 참가자들의 혈중 요산 수치는 위약 대비 1.47mg/dL 감소했다.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DA-1726은 동아에스티가 메타비아에 기술수출한 신약 후보물질로, GLP-1과 글루카곤 수용체에 동시에 작용하는 옥신토모듈린(Oxyntomodulin) 유사체다. 식욕 억제와 에너지 소비 증가를 통해 체중 감소를 유도한다.

임상 분석 결과, DA-1726 투여군의 평균 혈중 요산 수치는 투여 전 5.89mg/dL에서 109일째 1.02mg/dL 감소했다. 반면 위약군은 투여 전 4.80mg/dL에서 0.45mg/dL 증가해 두 군 간 변화량 차이는 1.47mg/dL로 나타났다.

특히 임상 참가자들의 평균 요산 수치가 투여 전부터 정상 범위에 있었음에도 유의한 감소 효과가 관찰됐다. 요산은 체내 퓨린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로, 혈중 요산 수치 상승은 간 지방 축적과 인슐린 저항성, 알코올 섭취 등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메타비아는 동일 임상 중간분석에서 DA-1726 투여 후 위약 대비 간 지방이 68.1%, 체중이 13.5%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당화혈색소(HbA1c) 역시 위약 대비 0.24%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임상 시작 당시 지방간이 확인된 DA-1726 투여자 5명 모두에서 109일째 자기공명영상 기반 간 지방 측정 지표인 MRI-PDFF가 5%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세경 기자

SK바이오팜, '세노바메이트' 日 상륙… 동북아 시장 공략 확대

세계 2위 일본 뇌전증 시장 진출

SK바이오팜은 일본 파트너사인 오노약품공업이 뇌전증 혁신 신약 '세노바메이트(일본 제품명: 에키스코프리)'의 일본 내 판매를 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출시는 지난 9월 일본 후생노동성(MHLW)의 신약 허가 이후 약 두 달 만에 이뤄졌다. 세노바메이트는 올해 3월 중국에서 판매를 시작한 데 이어 11월 한국과 일본에서도 잇따라 출시되면서 한·중·일 동북아 3개국에서 모두 판매를 시작하게 됐다.

일본은 미국에 이어 단일 국가 기준 세계 2위 규모의 뇌전증 시장으로, 약 100만 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오노약품공업이 일본에서 출시한 세노바메이트는 부분발작 환자[3]를 대상으로 하는 12.5mg, 50mg, 100mg, 200mg 정제다.



세노바메이트(일본 제품명:에키스코프리)

세노바메이트는 기존 항발작제 치료에도 발작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한국·중국·일본의 성인 부분발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아시아 임상 3상(study 035)에서 유효성을 입증했다. 특히 6주 유지기간 동안 완전 발작 소실(Seizure Freedom)을 달성한 환자 비율은 세노바메이트 100mg군 12.4%, 200mg군 30.1%, 400mg군 52.4%로, 위약군 2.6% 대비 높게 나타났다. 세노바메이트 투여군에서 가장 흔하게 (20% 이상) 나타난 이상반응은 어지러움과 졸음이었다.

이번 임상 결과는 뇌전증 치료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완전 발작 소실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기존 치료로 발작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일본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K바이오팜은 2020년 10월 오노약품공업과 일본 내 세노바메이트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출시를 계기로 일본 내 판매가 본격화되면서 향후 현지 매출에 비례한 로열티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세경 기자

스타벅스, 연말 홀케이크 예약 시작

내달 19일부터 수령 가능

스타벅스는 다음 달 11일까지 사이렌 오더를 통해 홀케이크 사전 예약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케이크는 12월 19일부터 27일까지 예약 당시 지정한 매장에서 수령할 수 있다.

이번 라인업은 눈사람 모양의 '조선델리 위시 스노우맨 케이크', 베어리스티를 크리스마스 오너먼트로 표현한 '트리 베어리 오너먼트 케이크', 헬로키티를 활용한 '헬로키티 굴뚝쿠헨' 등 캐릭터를 활용한 제품이 특징이다. 트리 베어리 오너먼트 케이크 구매 고객에게는 키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정판 오너먼트를 제공한다.

여럿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제품도 마련했다. 바스크 치즈 케이크에 딸기 콩포트를 더한 '스노우 딸기 치즈 케이크'와 기존 시그니처 제품인 '딸기 촉촉 초콜릿 생크림 케이크'를 홀케이크로 선보인다.



스타벅스 홀케이크

/신원선 기자 tree6834@



AX시대
주요 업종별 AI 활용법은?

2026 뉴테크놀로지 포럼

2026년 11월 18일(수) 오후2시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행사개요

행 사 명 22026 뉴테크놀로지 포럼
주 제 AX시대, 주요 업종별 AI 활용법은?
일 시 2026년 11월 18일(수) 14:00~17:00
장 소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
주 최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등 록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문 의 2026 뉴테크놀로지 포럼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2시 30분 이후에는 행사장 입장이 불가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연사 소개



이경전
- 경희대학교 교수
- 한국AI서비스학회장



김지섭
- 뤼튼테크놀로지스 이사



한영섭
- LG유플러스 AI R&D랩장



박기철
- KT IT부문 서비스플랫폼담당 상무



현창호
- SK텔레콤 엔터프라이즈 기술지원팀장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개막식	14:00~14:20	〈축사〉 **조경태** 국회의원 **이우용** 한국SW · AX총연합회 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20~14:50	**이경전** 경희대학교 교수 & 한국AI서비스학회장 : 업종별 AI/로봇 활용 방안과 전망
강연	14:50~15:20	**김지섭** 뤼튼테크놀로지스 이사 : AI 전환의 허와 실
	15:20~15:50	**한영섭** LG유플러스 AI R&D랩장 : AI가 이끄는 기술/산업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기회(AX)
	15:50~16:20	**박기철** KT IT부문 서비스플랫폼담당 상무 : 산업현장 AI적용사례와 변화 트랜드
	16:20~16:50	**현창호** SK텔레콤 엔터프라이즈 기술지원팀팀장 :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에서의 AX의 역할과 의의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metro · metro경제



신협중앙회-소진공, 지역경제 활성화 '맞손'

신협중앙회는 지난 1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과 '상생 가치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오른쪽)과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신협중앙회



NH농협금융,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실시

NH농협금융은 지난 13일 강원도 홍천군 영귀미면 소재의 왕대추마을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앞줄 왼쪽), 박종선 왕대추마을 이장(앞줄 오른쪽), 금융지주 봉사단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금융



풀무원, 'AX 해커톤' 성료… AI 에이전트 개발

풀무원은 지난 12~13일 서울 강남구 수서 본사에서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AX 해커톤'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참가자들은 일상 업무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를 직접 개발했다. 이우봉 총괄CEO(왼쪽)가 대상 수상자와 기념 촬영하고 있다. /풀무원



제주항공 임직원, 도심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제주항공이 임직원과 가족이 함께 나무를 심는 도심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에 나섰다. 제주항공은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 잠실한강공원에서 환경실천연합회와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임직원과 가족들은 공원 내 1200㎡ 규모의 공간에 모감주나무 10그루를 심었다. /제주항공



코웨이 블루휠스, 특수교사 휠체어농구 지도

코웨이는 농구단 블루휠스가 최근 경기 이천선수촌 삼성관에서 열린 '2026 통합교육 역량강화 연수'에 참여해 휠체어농구를 지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통합교육의 가치를 실현하고, 교사들이 수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통합교육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웨이

현대차그룹 웹사이트, 국내외 대표 웹 어워드 휩쓸어

생성형 AI 검색에 맞춰 대규모 개편
국내 5개·美 등 해외 8개 수상 실적

현대자동차그룹이 생성형 인공지능(AI) 검색에 맞춰 개편한 공식 웹사이트로 올해 국내외 시상식에서 13개 상을 받았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3일 열린 '제19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상과 대한민국AI브랜드대상 그룹·지주사 부문, 대한민국디지털콘텐츠대상 브랜드콘텐츠 부문 등 3개 상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특별상과 K-디자인 어워드 커뮤니케이션 부문 본상을 포함해 국내에서 총 5개 상을 받았다.

해외에서는 미국 웹마케팅협회가 주관한 '2026 웹어워드'에서 전체 최고상과 자동차·미디어·뉴스·PR 부문 최우수상 등 5개 상을 받았다. 전체 최고상은 86개 산업 부문 최우수작 가운데 웹사이트 한 곳에만 주어진다. '2026 W3 어워드'에서도 기업 커뮤니케이션과 뉴스 부문 금상, PR 부문 은상을 받아 해외 수상 실적은 총 8개로 늘었다.



2026년 현대차그룹 공식 웹사이트 국내외 웹 어워드 수상 내역. /현대차그룹

현대차그룹은 지난 3월 공식 웹사이트의 디자인과 콘텐츠를 개편한 뒤 생성형 엔진 최적화(GEO)를 강화해 왔다. GEO는 생성형 AI가 웹사이트의 정보를 쉽게 찾고 맥락을 파악해 답변에 반영하거나 출처로 인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와 사이트 구조를 개선하는 전략이다.

그룹은 AI가 검색과 답변에 공식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이트 구조를 손봤다. 이용자를 위해서는 뉴스 자동 요약과 음성으로 뉴스를 듣는 기능을 도입했다. '기술 혁신' 메뉴도 개편해 전동화와 수소 에너지, 로보틱스 등 그룹의 주요 기술 콘텐츠를 확충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AI 시대에는 이용자가 웹사이트에서 얻는 정보뿐 아니라, AI가 공식 정보를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전달하는지도 중요하다"며 "현대차그룹 공식 웹사이트를 이용자와 AI 모두가 신뢰하는 브랜드 정보의 출발점이자 새로운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혁 기자 sh95@metroseoul.co.kr

최장수·김이수·박애리 '자랑스러운 중앙인상'

중앙대 총동문회 '중앙인의 날' 행사


최장수 토탈소프트뱅크 회장


김이수 중앙대광명병원 암병원장


박애리 동국대 교수

중앙대학교 총동문회가 올해 '자랑스러운 중앙인상' 수상자로 최장수 토탈소프트뱅크 회장(행정 60), 김이수 중앙대광명병원 암병원장(의학 79), 국악인 박애리 동국대 교수(한국음악 95)를 선정했다.

중앙대 총동문회는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2026 중앙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랑스러운 중앙인상'은 각 분야에서 활약하며 대학의 명예를 높인 동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1989년 제정돼 올해로 37주년을 맞은 이 상은 지금까지 150여 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올해 신설된 '의와참 봉사상'은 김호겸 동문(청소년학 94)이 받았다. '젊은 중앙인상'은 이중호 성균관대 교수(건축 06)에게 돌아갔다. 4형제와 배우자 등 가족 5명이 동문인 이종광(의학 80)·오정승(간호 81)·이종무(의학 83)·이종철(의학 86)·이종화(의학 88) 동문 가족은 'CAU 영예 동문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부섭 총동문회장과 박세현 총장을 비롯해 동문과 재학생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현역 국회의원인 김영진(경영86)·김준혁(사학86)·백선희(사회복지87) 동문과 미국 조지아주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미셸 강(영어영문85) 동문도 자리를 함께했다.

행사는 동문 연주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시상식과 장학금 전달식, 만찬 및 교가 제창 순으로 마무리됐다.

/김수정 기자 kcrystal@

HS효성첨단소재, 기업 마케팅 PR '최우수상'

PR인의 날·한국PR 대상

탄소섬유 기술 활용 장애인 선수 지원

HS효성첨단소재가 탄소섬유 기술을 활용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지원 활동으로 국내 홍보 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HS효성첨단소재는 지난 13일 서울 잠실 소피텔 앰배서더에서 열린 '2026 PR인의 날 및 제34회 한국PR대상 시상식'에서 기업 마케팅 PR(B2B)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장애인 사이클 국가대표 박찬종 선수의 경기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알린 홍보 프로젝트에 따른 것이다.

HS효성첨단소재는 전북대학교병원 탄소소재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와 협력해 박 선수의 탄소섬유 의족 제작을 지원했다. 박 선수는 해당 의족을 착용하고 훈련과 국제대회에 참가했다.

박 선수는 '2026 아이치·나고야 장애인아시안게임' 사이클 남자 3000m 개인추발(C3등급)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HS효성첨단소재는 박 선수의 훈련과 도전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하고 임직원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캠페인 영상 9편의 누적 조회수는 200만회를 넘었으며 관련 언론 보도는 210건을 기록했다. 임직원 약 200명도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

금감원, 투자자 교육·보호 캠페인 전개

AI 금융사기 예방 체험관 등 운영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영상과 음성을 직접 보고 들으며 투자사기 수법을 익힐 수 있는 체험관이 서울 여의도공원에 문을 연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2026 세계투자자주간'을 맞아 투자자 교육·보호 캠페인을 진행한다.

먼저 금감원은 KT와 함께 23일부터 25일까지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AI 금융사기 예방 체험관을 운영한다. 참가자는 딥페이크 영상과 딥보이스 음성, 가짜뉴스를 접하고 이를 구별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체험관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하며, 당일 현장에서 QR코드로 예약하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투자사기와 보이스피싱 대응 요령을 담은 안내책자도 배포한다.

12월 1일에는 금감원 본원에서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가 특별강연에 나선다. 김 교수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개인투자자가 심리적으로 흔들릴 때 어떻게 대처하고, 투자사기 피해를 겪은 뒤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참가 신청은 이달 23일까지 받으며 추첨으로 200명을 뽑는다.

금감원은 공식 유튜브를 통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AI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한국팀의 도전 과정을 공개하고, KT와 함께 제작한 금융사기 예방 영상도 게시한다. /하정윤 기자 zekova@

시몬스 일루미네이션 콘서트

시몬스가 경기도 이천의 복합문화공간 시몬스 테라스에서 '일루미네이션 콘서트'를 연다.

15일 시몬스에 따르면 전날 시작한 올해 콘서트는 오는 12월19일까지 6주간 매주 토요일 시몬스 테라스 2층 바스킷볼 코트에서 열린다. 발라드부터 클래식까지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여해 매주 색다른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콘서트는 첫 날 딘딘이 첫 테이프를 끊은 이후 ▲존박(11월 21일) ▲케이시(11월 28일) ▲박재정(12월 5일) ▲심규연·림팍(12월 12일) ▲경서(12월 19일) 순으로 출연한다. 시몬스 테라스를 찾는 방문객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지만 좌석이 한정돼 있어 선착순으로 입장이 마감될 수 있다.

특히 올해 콘서트는 '크리스마스 트리 및 일루미네이션'이 선사하는 시각적 즐거움에 아름다운 선율을 더하며 방문객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전할 전망이다.

올해 일루미네이션 테마는 '별빛 테라스, 크리스마스가 빛나는 곳(The STARLIT TERRACE ? WHERE CHRISTMAS GLOWS)'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유독 힘들었던 한 해를 보낸 모두에게 위로와 응원을 전하고,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크리스마스를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김승호 기자 bada@

인 사 ◆**국가보훈부** ◇과장급 승진 △과학기술서기관 전승현

◆**고용노동부** ◇국장급 승진 △공무직위원회 기획단장(파견) 홍정우

부 음 ▲조정순씨 별세, 김용만(한국기자협회 기금 이사)·용석·현옥·경옥·경자씨 모친상, 명노천·조용희·이재형씨 빙모상, 정순옥·조명희씨 시모상 = 15일, 국립중앙의료원 301호, 발인 17일 오전 6시20분, 장지 전북 고창 선영, 02-2262-4800

▲진형구씨 별세, 한동훈(국회의원)씨 빙부상=15일,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 조문 16일 오후 2시부터, 발인 18일 오전 8시30분. 02-2258-5940

제4회 2026 GLOBAL ACX AWARDS

제4회 2026 글로벌 ACX 초월대상 시상식

대한민국 SW·AI 산업의 혁신과 AX 전환 확산을 이끄는 도약의 장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이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대한민국 SW·AI 산업의 혁신과 AX(AI 전환) 확산에 기여한 우수 제품·서비스 및 활용사례를 발굴하고, 산업 발전에 헌신해 온 기업과 관계자 여러분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제4회 2026 글로벌 ACX 초월대상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SW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방향 공유와 함께 국산 AX 혁신 성과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에 귀빈 여러분을 정중히 모시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한국SW·AX총연합회 회장 이 우 용

01. 행사 개요

일 시	**2026년 11월 25일(수) 13:30 ~ 16:00** (본행사 14:00 ~ 16:00)
장 소	**메타빌드빌딩 AI Space Center 대회의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4, B1F)
주최 / 주관	**주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관 :** (사)한국SW·AX총연합회, 전자신문사, 메트로경제
후 원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방인공지능융합협회, 인공지능SW엔지니어링진흥협회, 정보시스템감리협회, 한국AI융합기술인협회, 한국ICT융합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PMO사회적협동조합, 한국PMO협회, 한국SW저작권협회, 한국AI데이터산업협회, 한국상용인공지능SW협회, 한국인공지능SW산업협회,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한국정보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제로트러스트보안협회, 한국중소벤처디지털혁신협회, 한국핀테크협회 외
시상 부문	특별공로상 / 인재상 / AI 활용우수사례상 / 제품·서비스상

02. 세부 프로그램

시 간	소요	주요 내용	비고 / 진행
13:30 ~ 14:00	30'	등록 및 VIP 사전 환담	VIP 대기실
14:00 ~ 14:05	5'	개회선언, 국민의례 및 주요 내빈 소개	사회자
14:05 ~ 14:10	5'	환영사 및 개회사	(사)한국SW·AX총연합회장
14:10 ~ 14:25	15'	축사 및 격려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회의원 주관언론사
14:25 ~ 14:45	20'	**정책기조연설 :** SW시장 활성화를 위한 2026년도 정책 추진방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45 ~ 15:00	15'	국산 AX 혁신 제품·서비스 성과 및 도입 성공사례 발표	대표 수상기업 1개사
15:00 ~ 15:05	5'	심사경과 보고 및 최종 수상자 발표	심사위원장
15:05 ~ 15:40	35'	**제4회 2026 글로벌 ACX 초월대상 본 시상**	부문별 유공자 및 우수기업
15:40 ~ 15:55	15'	전체 수상자 및 주요 내빈 기념촬영	참석자 전원
15:55 ~ 16:00	5'	폐회선언 및 장내 정리	사회자

* 일정 및 세부 프로그램은 내·외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스캔

[참가 신청 및 참석 회신 안내]

- 온라인 사전등록 URL : https://www.kswict.or.kr/awards-ceremony-2026
- 원활한 행사진행 및 지정 좌석 배치를 위해 **사전에 참석 여부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장 공간이 협소하오니 **축하 화환은 정중히 사양**하며,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사)한국SW·AX총연합회 사무국 (문의: 02-858-8510 / 사무총장 박환수)

내 것을 지키는 '환취권'



박 규 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따능 AI

회사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그 회사의 재산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의 관리 아래 놓인다. 채권자들은 회생절차를 통해서만 돈을 받을 수 있고, 개별적으로 재산을 가져가거나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물건 중에 '원래부터 그 회사 것이 아닌 물건'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리스회사가 어느 기업에 기계를 빌려줬는데 그 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리스회사는 자신의 기계를 그냥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때 등장하는 권리가 바로 환취권(還取權)이다. 환취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제3자의 특정재산이 파산관재인의 관리하에 있을 때, 그 실제 소유자가 재산의 반환이나 인도를 구하는 권리를 뜻한다. 채무자회생법 제70조는 '회생절차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쉽게 말해, 원래 내 것은 회생절차와 상관없이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쉽다. 리스회사가 기업에 기계를 빌려줬는데 그 기업이 리스료를 연체했다. 리스회사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기계 반환을 요구한 경우, 법원은 리스회사의 환취권 행사를 인정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이미 해지된 계약에 따른 소유권 반환 청구는 회생절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창원지방법원 2016. 8. 31. 선고 2015나1152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3. 선고 2020가단5173353 판결). 반대로 해지 통보가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이후에 도달한 경우에는 환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지 통보의 도달 시점이 하루 차이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환취권이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리스회사가 회생절차에서 스스로 '회생담보권자'로 신고하고 회생계획 인가에 동의해 놓고서, 뒤늦게 환취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 또한 대금을 다 받을 때까지 소유권을 유보하는 이른바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경우, 법원은 그 유보된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담보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환취권이 아닌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1190 판결). 최근에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파산한 사건에서, "이용자가 거래소에 맡긴 가상자산은 특정성이 없는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하다"며 환취권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도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19. 선고 2025가단100270 판결).

결국 환취권은 '내 것은 내 것'이라는 상식을 도산절차에서도 지켜주는 제도다. 다만 그 권리가 진정한 소유권에 기반한 것인지, 절차 과정에서 스스로 포기한 것은 아닌지, 해지 통보 시점이 적법한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내 재산까지 그 회사 빚을 갚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 환취권은 바로 그 원칙을 지키는 법적 장치다.

/법무법인 바른

똑똑한 안경의 그늘



기자 수첩
차 현 정
〈산업부〉

안경 하나로 외국어를 번역하고 눈앞의 사물을 검색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AI가 스마트폰을 넘어 착용형 기기로 확장되면서다. 그러나 기술이 편리해질수록 악용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과 협업한 AI 안경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공개하고 오는 12월 10일 국내 출시를 예고했다. AI 제미나이를 탑재해 번역과 길 안내, 회의자료 요약 등을 지원한다. 메타 역시 레이밴과 협업한 스마트 안경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논란이 됐다.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15일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한 것이다. 그는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안경을 사용한 사례는 아니지만 소형 전자기기와 AI가 결합했을 때의 위험성을 드러냈다.

국가자격시험에서는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도 적발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달부터 감독 인력인 'AI 인스펙터'를 투입했다. 지난달 가스기사 실기시험에서는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채 답안을 작성하던 수험자가 적발됐다.

문제는 AI 안경이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제조사들은 디자인을 개선해 자연스럽게 착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 소비자에게는 장점이지만 시험장처럼 사용이 제한되는 공간에서는 관리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제조사들도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촬영 중 외부 표시등이 켜지고 이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했다. 메타도 유사한 기능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장치만으로 모든 오남용을 막기는 어렵다.

관건은 기술 발전에 맞춰 관리 체계도 정비할 수 있느냐다. 산업인력공단은 전파탐지기 도입과 시험장 CCTV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기기가 등장할 때마다 감독 인력만 늘리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기기 확인 절차와 사용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AI 안경 시장은 본격적인 경쟁에 접어들고 있다. 기업들이 성능과 디자인을 개선하는 만큼 기술의 오남용을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소비자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과 사회가 안심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AI 안경이 일상에 자리 잡으려면 기술의 완성도만큼 신뢰할 수 있는 환경도 갖춰져야 한다.

/ hyeon@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16일 (음 10월 8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길을 가다 필요한 정보를 얻을 것입니다. **60년생** 평소와는 좀 다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72년생** 다소 모든 일에 준비성이 필요합니다. **84년생**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49년생 여행을 계획중이면 다음으로 미루세요. **61년생** 준비를 철저히 해야 실수를 줄이고 원하는 결과를 얻습니다. **73년생**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85년생** 용기를 내어 추진하세요.

50년생 약간의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62년생** 능력을 평가하기에 좋은 기회입니다. **74년생** 오늘 귀하의 행운의 숫자는 9번입니다. **86년생**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51년생 매사에 조심하는 것이 길합니다. **63년생** 새 친구들을 사귀도록 하세요. **75년생** 많은 사람과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87년생** 노력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52년생 베푸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세요. **64년생** 자신의 고집을 버려야 하는 것이 길합니다. **76년생** 깊이 생각한 뒤 상대를 따른다면 즐거운 날이 될 것입니다. **88년생** 저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3년생 즉각적인 실천이 필수입니다. **65년생** 신중히 나아가야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77년생** 어려움 속에 빠져 있다고 좌절은 금물입니다. **89년생** 사면초가의 위기입니다.

54년생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줄 아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66년생** 결단성이 필요합니다. **78년생** 윗사람의 도움을 크게 받게 됩니다. **90년생** 계획성이 모자라 위험에 빠집니다.

55년생 괴롭지만 고통을 내색하지 마세요. **67년생** 오늘 하루 기쁜 일이 가득합니다. **79년생** 작은 일은 해결되었으나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91년생** 공부에 집중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56년생 유비무환이란 말을 명심하도록 하세요. **68년생** 낭비와 사치는 버리세요. **80년생** 매일 매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92년생** 이성과의 갈등이 우려됩니다.

57년생 금전운이 불리합니다. **69년생** 성실한 자세로 나아가면 더 큰 이득이 보입니다. **81년생** 유흥에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93년생** 패배를 인정하고 왜 그런 건지 반성하세요.

58년생 오늘은 근신할 때 입니다. **70년생** 지출을 좀 줄이세요. **82년생** 성공과 실패 그 사이에 귀하는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94년생** 옛 것은 다 물리쳐버리고 다시 또 시작하세요.

59년생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더욱 심합니다. **71년생** 지금 부와 명예의 길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83년생**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95년생** 말조심하고 건강에 신경 쓰세요.



김상회의 四季

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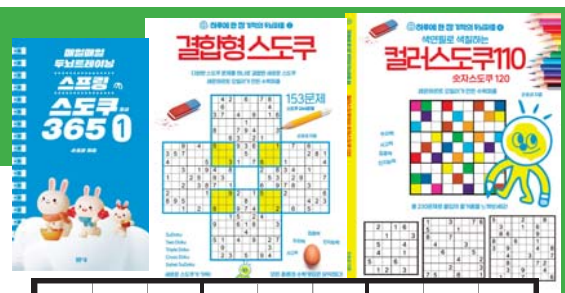
기원과 기도는 어떻게 다를까? 기원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기도는 바라는 바인 기원을 이루기 위해 빌게 되는 일련의 마음을 모으는 의식과 행위를 뜻하는 것이리라. 따라서 기도의 방법이나 의식은 다양하게 행해질 수가 있다. 초월자라고 생각되는 어떤 특정 신이나 존재들에게 바라는 바를 계속 구하거나 절을 하거나 경을 읽거나 하면서 간절함이 통하면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그래서 '지성감천'(至誠感天), 즉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라는 사자성어도 있는 것이며, 이러한 지극정성의 예화도 적잖게 있었다. 보통 정성이 함께 해야 하는 것이 기도인지라 기독교나 불교 등 교회나 사찰에서는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고 신부나 목사, 스님들이 기도의 주재자로서 역할을 하며 샤머니즘 전통이 강한 나라들은 무속인들이 그 역할을 담당하는데, 초월적 절대자나 신들에게 개인의 소망과 발원을 대리하여 고하는 것이다.

물론 개개인이 각자 집에서 개별 기도 발원을 올리기도 하지만, 기도를 혼자 하면 뭔가 소홀하고 부족해 보이는 생각이 든다. 함께 하는 기도가 힘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인데, 아마도 이는 아주 오랜 옛적부터 하늘의 뜻을 읽고 전하는 이를테면 신으로부터의 감응력이 뛰어난 성스러운 임무를 가진 신탁의 힘을 지닌 인물들이 제사장처럼 신앙적 역할을 해주는 것이 자연스럽게 성립된 탓이기도 하다. 세속적인 인간들이 감히 성스러운 신에게 바로 소원을 구하는 것이 예의에 맞지 않다고 보는 까닭이리라. 그러나 혼자 하는 기도라 해서 힘이 약한 것은 아니다. 우리 선조들, 할머니 어머니들은 가족의 안녕과 복을 위해 장독대에 물 한 그릇 정하게 떠놓고도 빌었고 사계절 주요 절기 때마다도 상달 고사 떡이며 동지팥죽을 쑤어서 터주신이든 서낭당이든 칠성님께든 빌고 또 빌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한뼘 스도쿠365



문제출제: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1		6			7			3
				4		8		
	4		9					1
5				9		3		
	7		1		2		6	
		3		7				2
7					9		5	
		2		5				
9			2			6		4

2	3							4
	8			9			1	3
		9			8	2		
		7		3				
	5		6	4	9		8	
				1		3		
		8	4			6		
5	7			8			4	
4							5	8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종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35호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39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서울 강북권도 59㎡ 평균 9억… 소형 아파트 문턱 높아져

서울시 '지난달 토지거래허가' 자료
강북·서남권 상승폭 둔화했지만
평균 신청 가격, 8월 대비 상승세

서울 전체 신청가격 상승폭 줄어
전 권역 신청 건수 두 달째 증가세



12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

서울 강북권의 59㎡ 규모 아파트 평균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이 9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남권도 평균 9억1000만원을 기록했다. 두 권역 모두 10월 들어 가격 상승폭은 둔화했지만, 평균 신청가격은 8월보다 각각 9000만원과 8000만원 높아졌다.

15일 서울시가 지난 13일 공개한 '10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현황 및 가격변동' 자료에 따르면 강북권 10개 자치구의 59㎡ 규모 아파트 평균 신청가격은 8월 8억1000만원에서 9월 8억7000만원, 10월 9억원으로 상승했다.

강북권은 종로·중·강북·노원·도봉·동대문·성북·중랑·서대문·은평구를 묶은 권역이다. 평균 신청가격의 전월 대비 증가액은 9월 6000만원에서 10월 3000만원으로 줄었지만, 가격 수준은 높아졌다.

강서·관악·구로·금천구가 속한 서남권에서도 같은 규모 아파트의 평균 신청가격이 8월 8억3000만원에서 9월 9억원, 10월 9억1000만원으로 올랐다. 전월 대비 증가액은 9월 7000만원에서 10월 1000만원으로 축소됐다.

이 수치는 해당 월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주택의 평균 가격으로, 동일 단지·동일 조건의 아파트 가격 변동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권역별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 변동률에서도 강북권과 서남권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강북권 상승률은 9월 2.17%에서 10월 0.52%로, 서남권은 같은 기간 2.44%에서 0.89%로 낮아졌다. 서울시는 그동안 중저가 주택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가격이 오른 데다 금융 부담이 누적된 영향으로 풀이했다.

다른 권역에서는 가격 흐름이 엇갈렸다. 강남3구·용산구의 신청가격은 10월 0.92% 하락해 9월(-0.41%)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반면 광진·성동·마포·동작·양천·영등포·강동구 등 한강벨트 7개구는 0.39%에서 1.04%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 전체 신청가격은 0.50% 올라 전월(1.51%)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전 권역에서 증가했다. 10월 서울 아파트 신규 신청은 3947건으로 전월 3649건보다 298건(8.2%) 늘었다. 8월 2939건까지 줄었다가 9월부터 두 달 연속 증가했지만, 올해 가장 많았던 4월 8886건의 44.4% 수준에 머물렀다.

강북권 신청은 1673건으로 전월보다 2.8%, 서남권은 775건으로 9.5% 늘었다. 강남3구·용산구는 639건으로 20.6% 증가해 권역 중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한강벨트는 860건으로 9.7% 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월 대비 신청 증가율이 9월 24.2%에서 10월 8.2%로 낮아진 만큼 최근 증가세가 주택시장 전반의 회복으로 이어지는지는 추가적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전역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허가 절차에 따른 주택시장 정보 공백을 줄이기 위해 25개 자치구의 신청 현황과 가격 변동을 한시적으로 매월 공개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제자리걸음… "예산 100조" 요구만 봇물

제5차 철도망 계획 의견수렴 행사
국민 97% "철도 투자 늘려야"
국토부 "12월 말까지 고시 예정"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국민 의견수렴 행사에서 지자체장 및 지역 국회의원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오는 2035년까지 10년간 철도 투자의 밑그림이 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시작 첫해가 다 가도록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작년 정권 교체로 시기를 놓쳤다면 올해 들어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요구가 쏟아지면서 사업 선정과 투자 규모를 둘러싼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 13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내일을 잇는 철도 대전환'을 주제로 제5차 철도망 계획(2026~2035) 의견수렴 행사를 열었다. 지방정부와 전문가는 물론 국민 의견을 직접 듣겠다고 하면서 경남 남해·산청, 전남 고흥 등에서 새벽 버스를 타고 올라온 주민들도 있었다.

앞서 진행된 국민 사전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96.9%가 철도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거주 지역의 철도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응답도 66.2%에 달했다. 다만 우선 투자 지역으로는 수도권 거주자는 60.6%가 수도권을, 비수도권 거주자는 73.6%가 비수도권을 꼽았다.

이호 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은 발제를 통해 5차 계획의 비전으로 '철도로 연결하는 모두의 성장, 하나의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이 본부장은 "지금 시기를 지나버리면 5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며 "4차 때 봤던 것 처럼 공사비는 더욱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철도망 계획은 10년 단위로 세우지만 5년마다 재검토하는 만큼 이번에 빠진 사업은 다음 계획까지 기다려야 한다.

광역 지방정부 15곳 설문에서는 신규 사업 적정 투자 규모로 7곳이 약 100조원, 6곳이 약 200조원을 골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광재 의원도 영상 축사를 통해 5차 계획 예산이 100조원 규모는 돼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4차 계획 당시 신규 철도사업 규모는 43조원 안팎이었다.

지자체들의 요구도 쏟아졌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40개 노선 반영을 요청하며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GTX-D Y자 노선과 대장홍대선 연장을 요구했다. 충청권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충북은 청주공항~김천 구간 연결을 통한 중부내륙철도 완성을 주장했다.

정부는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철도는 계획부터 개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앞으로의 수요까지 내다보며 투자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재원의 한계가 있고 기존 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업을 반영하기는 어렵다"며 "경제성과 균형발전, 노선 간 연결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합리적인 방향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시간이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건설법에 따른 10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국가 철도사업은 이 계획에 반영돼야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국토부는 2023년 6월 교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고, 당초 지난해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발표시점은 지난해 말, 올해 7월 등으로 거듭 미뤄졌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토론에서 "전문가 종합평가와 공청회,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말까지는 고시를 하려고 한다"며 "가급적 많은 금액을 반영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10곳서 1681가구 청약… 물량 '숨고르기'

분양 캘린더

전주 대비 공급물량 68% 줄어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등 진행

11월 셋째 주 분양시장은 공급 물량이 전주보다 약 68% 줄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

15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10곳에서 총 1681가구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

전체 물량의 약 80%는 서울과 경기에 집중됐다. 서울 중랑구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를 비롯해 경기 광주시 '제일풍경채 광주 포에듀', 의정부시 '의정부역 펠리스타워 양우내안애' 등이 청약에 나선다. 시흥거모지구 S-1블록과 안산신길2지구 B-1블록에서는 각각 공공분양 105가구와 124가구가 공급된다.

지방에서는 경북 경산시 '리첼 에듀포레 경산역' 201가구, 제주 제주시 '삼도이동 1·2지구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 72가구 등이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강원 평창군에서는 '평창장평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형 32가구와 고령자복지형 36가구가 입주자를 모집한다.

서울 중랑구 중화동의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는 오는 17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지하 3층~지상 26층, 3개 동, 전용면적 45~126㎡ 총 176가구로, 이 가운데 11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7호선 중화역이 가까운 입지다.

같은 날 경기 광주시 탄벌동에 들어서는 '제일풍경채 광주 포에듀'도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지하 2층~지상 29층, 6개 동, 전용면적 84㎡ 총 572가구 규모다. 탄벌초를 걸어서 통학할 수 있고 탄벌중과 광주시립중앙도서관도 인근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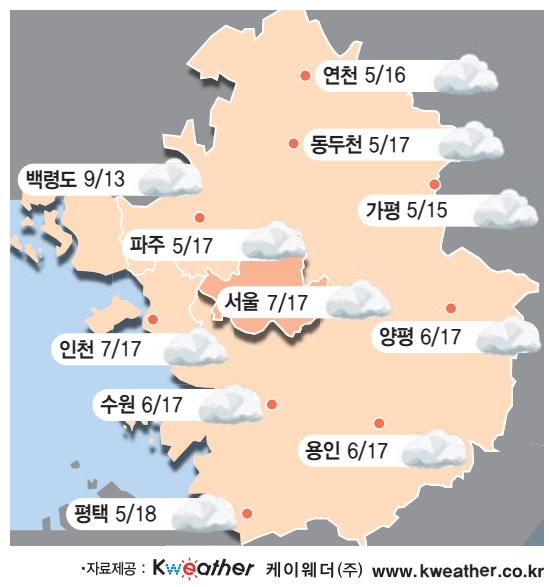
/성채리 기자 cr56@

오늘의 날씨 해뜸 / 07:12 | 해짐 / 17:21

11월 16일 (月)
음력 : 10월 8일

수도권 날씨
7 ~ 17℃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이란 "호르무즈서 유조선 3척 기뢰에 부딪혀 화재" /사진 뉴시스

▲트럼프, 캘리포니아 사형수 548명 감형 추진에 "美사법 정의 재앙"

▲트럼프·시진핑·푸틴 첫 3자 회담…中도 핵군축 협상 나설까

▲"日, 5년간 방위비 70→60조엔 증액규모 축소 검토…증세 부담"

▲10월 中 은행 신규대출 20조원↓… 올해 3번째 감소

▲中전문가 "美 반도체 수출규제 강화시 희토류 통제로 반격할 수도"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6035호 2026년 11월 16일 월요일



"건강상태별 개인화
6조 건기식 시장 잡아라"
L1

약도 골라 먹는다
제약업계
제형 차별화 경쟁
L2



"와우 한마디면 충분… 음악으로 행복과 위로 전하고파"

새벽을 여는 사람들

음악으로 행복 짓는
방 영 섭 작곡가



방영섭 작곡가.

1985년 제9회 MBC 대학가요제 입상
가수·작곡가·뮤지컬 배우 등 활동

2009년 뉴욕서 '행복콘서트' 개최
국내외 넘나들며 200회 넘게 공연

'와우'에 담긴 공감·격려의 가치 강조
AI 활용한 뮤직비디오 제작 등 도전

무심코 건네는 짧은 감탄사에 격려와 공감의 힘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 방영섭 작곡가가 뮤지컬 'WOW!!'로 또 한 번 관객의 마음을 두드린다.

가수, 작곡가, 음악 프로듀서부터 뮤지컬 배우까지. 방 작곡가가 걸어온 길은 한 가지 직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다양한 분야를 경험했지만, 전하려는 메시지는 한결같았다. 음악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일상에 위로를 건네는 것이다.

◆무대 안팎 넘나든 40년

방영섭의 음악 인생은 1985년 제9회 MBC 대학가요제 입상으로 시작됐다. 직접 만든 노래를 부르고 대중에게 사랑받는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이후 작곡과 음반 제작, 공연 기획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1991년부터 2003년까지는 뮤지컬 배우로 무대에 서기도 했다.

2007년 미국 유학은 음악적 시야를 넓힌 계기였다. 뉴욕에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문화를 접하며, 자신만의 음악적 표현을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다. 현지에서 발매한 앨범 'HAPPY HAPPY'에는 당시의 경험과 음악 인생을 돌아본 생각을 담았다.

"그 장면에 왜 이 음악이 필요한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음악은 장르를 넘어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방 작곡가는 '서사와 감정'에서 음악의 본질을 찾는다. 가사의 메시지가 명확해야 하는 CCM부터 여러 목소리가 하나의 울림을 이루는 합창, 인물의 서사를 끌고 가는 뮤지컬까지. 장르마다 음악이 쓰이는 방식은 다르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안에 감정과 여운을 남겨야 한다는 점은 같다.

작업할 때도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끝까지 붙든다. 선율을 복잡하게 꾸미기보다 단순하지만 오래 남도록 만든다. 가수와 연주자의 개성이 더해지면 곡이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보고, 그 해석의 여지를 열어 두는 것이다.

◆'행복은 선택이다'…위로·희망 전달

음악으로 위로와 희망을 전하겠다는 생각은 행복콘서트로 이어졌다. 노래와 이야기, 관객과의 소통을 엮어 웃음과 긍정의 에너지를 나누는 공연이다. 방 작곡가는 2009년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첫 공연을 연 뒤, 국내외에서 지금까지 200회 넘게 행복콘서트를 이어왔다.

핵심 메시지는 '행복은 선택이다'였다. 그가 생각하는 행복은 늘 웃고 즐거운 상태가 아니다. 어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힘든 상황에서도 의미를 찾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에 가깝다. 상황을 바꿀 수는 없어도 임하는 태도와 다음 걸음은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영어를 배우던 시절, "뉴욕에서 살려면 와우부터 몸에 익혀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처음에는 낯선 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표현으로 받아들였지만, 곧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와우는 리액션이잖아요. 위로할 때도, 칭찬하고 격려할 때도 필요하죠. 상대의 이야기에 감탄하고 반응하면 마음이 열립니다. 아는 것이 많은 시대일수록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감격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에게 와우는 단순한 감탄사가 아니다.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좋은 점을 발견해 표현하는 태도다. 행복콘서트에서 전해온 긍정과 희망의 메시지도 이 생각에서 출발했다.

◆감탄사 'WOW', 무대 위 이야기로

행복콘서트에서 전한 메시지를 창작뮤지컬 'WOW!!'에서 무대 위 인물의 삶으로 확장했다. 오는 19일 김천시립합창단 창단 25주년 기념 제40회 정기연주회에서 선보이는 작품으로, 방 작곡가는 뮤지컬에 들어가는 7곡을 작곡했다.

그에게 이번 작품은 그간 경험한 음악 활동을 하나의 무대로 연결하는 작업이다. 가수와 작곡가로서 노래를 만들고, 프로듀서로서 음반을 제작하고, 배우로서 무대에 섰던 경험을 뮤지컬 이야기 안에 녹였다.

작품은 주인공 도희가 40대의 자신과 20대의 자신을 마주하는 이야기다. 40대의 도희는 과거의 자신에게 말을 건넨다. 눈물을 흘리며 버텨온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는 위로다. 이 장면에 흐르는 노래가 '여기까지 잘 왔어'다.

방 작곡가는 이 곡을 쓰면서 자신도 울컥했다고 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잘 해낸 순간뿐 아니라 버텨낸 시간도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생각에서다. 관객 역시 도희의 이야기를 보며 자신의 삶을 떠올릴 수 있도록 했다.

그가 또 하나 아끼는 곡은 '따스한 그날의 기억'이다. 평범하게 흘려보낸 하루가 시간이 지난 뒤에는 가장 그리운 순간이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세월이 흐르면 알게 되겠지, 아무 일 없이 평범했던 하루가 너무나 그리워지네"라는 가사처럼 지금의 일상이 훗날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다.

◆새로운 기술도 창작의 도구

요즘 방 작곡가는 새로운 방식을 익히며 작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직접 인공지능(AI) 도구를 배워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있다. 자신이 구상한 이야기를 대본과 영상으로 직접 완성해 보고 싶어서다. 그에게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일은 또 하나의 창작 과정이다.

AI가 창작자의 영역을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거부보단 유연하게 대응하는 태도를 택했다. 기술을 활용해 기존에 직접 다루기 어려웠던 분야에도 도전할 수 있다는 점은 기회라고 말한다. 다만 AI가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일과 창작자가 의도를 갖고 작품을 완성하는 일은 구분해야 한다고 믿는다.

"AI로 무언가를 생성하는 것과 작품을 만드는 것은 다릅니다. 결과물이 많아지는 시대일수록 결국 누군가가 판단하고 선택해야 하죠. 저도 새로운 분야를 배우는 데 거부감이 없어요. 해보지 않았던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건 좋은 점입니다."

앞으로는 뮤지컬 영화나 애니메이션 제작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음악을 중심으로 다른 분야까지 작업 영역을 넓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것이다.

그는 노래 한 구절과 무대 한 장면이 누군가의 삶에 좋은 기억으로 남길 바랄 뿐이다. 음악으로 웃음과 좋은 에너지를 전하는 일을 계속하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활동도 이어가고 싶다고 했다.

"와우 하나만 잘해도 좋은 일도 하고, 재미있게도 살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많은 것보다 이 말 하나면 충분합니다."

특별한 순간에만 나오는 감탄사가 아니라, 평범한 하루에도 서로에게 건넬 수 있는 말. 방 작곡가는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가능성을 믿는다. "행복은 선택"이라는 그의 메시지처럼,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기꺼이 감탄하고 서로의 순간을 인정하는 일도 마음먹기에 달려 있을지 모른다. 익숙해서 지나쳤던 '와우'라는 말이 조금 다르게 들리는 이유다. /김수정 기자

kcrystal@metroseoul.co.kr



창작뮤지컬 'WOW!!' 포스터.


방영섭 작곡가(왼쪽에서 두번째)의 미국 활동 시절 모습. /본인 제공

메트로 한줄뉴스



▲손흥민·이강인 미소…한국 축구, 사우디전 뒤로하고 다시 구슬땀 /사진 뉴시스

▲'트리플 악셀 성공' 피겨 김유재, 시니어 그랑프리 4차 대회 쇼트 3위…첫 메달 도전

▲'AG 금메달' 스케이트보드 강준이, SLS 도쿄서 시즌 2번째 우승

▲서울 문화시설 야간 결혼식 어때요?…운현궁·박물관 개방

▲예술의전당 11월 마티네…노현진·김정원 등 출연

▲그때 그 연극, 오늘의 무대로…'리플레이' 24일 개막